

# myFord

2013 WINTER



## Value of Name, **Explorer**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탐험가 정신은 익스플로러의 정체성이자 존재 가치다.  
SUV의 대명사 익스플로러 사승기.

## 퓨전과 떠난 부산 여행

밝고 활기찬 청색의 기운이 넘실대는 도시 부산. 밟 디디는 곳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재발대는 부산의 진면목을 퓨전과 함께 경험했다.

##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다

포드 머스탱 50주년을 맞아 혁신적 기술과 세계 최상급 성능으로 무장한 올-뉴 머스탱 6세대가 재탄생했다.



Go Further



## THE ORIGINAL - THE LUGGAGE WITH THE GROOVES

In 1950, RIMOWA issued the first suitcase with the unmistakable grooves. Since then, it has evolved into a cult object in its own right. To this day, the original RIMOWA luggage has lost none of its fascination. It remains the luggage of choice for all those who seek the extraordinary - including models Alessandra Ambrosio and Johannes Huebl.

RIMOWA Stores Korea: 명동스토어 Grand Open 02.6361.8320, 청담본점 02.546.3920, 신사스토어 02.540.3920, 갤러리아 WEST 02.6905.3921,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744, 본점 02.3438.6142  
롯데백화점 본점 02.2118.6077, 부산본점 051.810.3166, 센텀시티 051.730.3253, AK 플라자 분당점 031.8023.2166, 롯데면세점 본점 02.759.6649, 김포공항점 02.2669.6728 [www.rimowa.com](http://www.rimowa.com)

**RIMOWA®**

Germany since 1898



## 포드코리아의 약진은 계속됩니다!

못 견딜 것 같았던 여름의 뜨거운 열풍을 떠나보내고 쌀쌀한 바람을 느끼는 것도 잠시, 어느덧 갑자기 찾아온 추위가 낫설기만 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초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한 일들은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이 시행착오와 얻은 것은 무엇인지, 2013년을 돌아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나'를 칭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년, 수입차 시장의 성장과 변화가 끊임없었던 시간 속에서 포드는 합리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한 시장의 평가를 통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작년 말 올-뉴 이스케이프를 시작으로 2013년의 시작과 동시에 올-뉴 퓨전, 포커스 디젤, 그리고 2013년 수입차 업계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올-뉴 링컨 MKZ에 이르는 다양한 신차 출시와 더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인 '2013 SEMA(Specialty Equipment Market Association) 쇼'에서 포드 머스탱과 F-시리즈가 '가장 인기 있는 차와 트럭(Hottest Car and Truck)'으로 공식 선정되고, 6세대를 여는 2015년 올-뉴 머스탱이 전 세계 동시에 공개되는 등 국내외 언론에서도 많은 하이라이트를 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도 포드코리아는 가파른 성장세를 1년 내내 유지하며 순항했습니다. 11월에는 역대 최고 판매고인 780대를 달성하며 지난 5월, 7월, 그리고 10월에 이르기까지 올해에만 총 네 차례에 걸친 월 최고 판매기록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판매성장을 이끈 것은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7개의 전시장을 신규 오픈하며 국내 수입차 시장 내 위치를 강화해 온 포드의 노력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로써 포드는 연 15만 대를 넘어서고 있는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로서 그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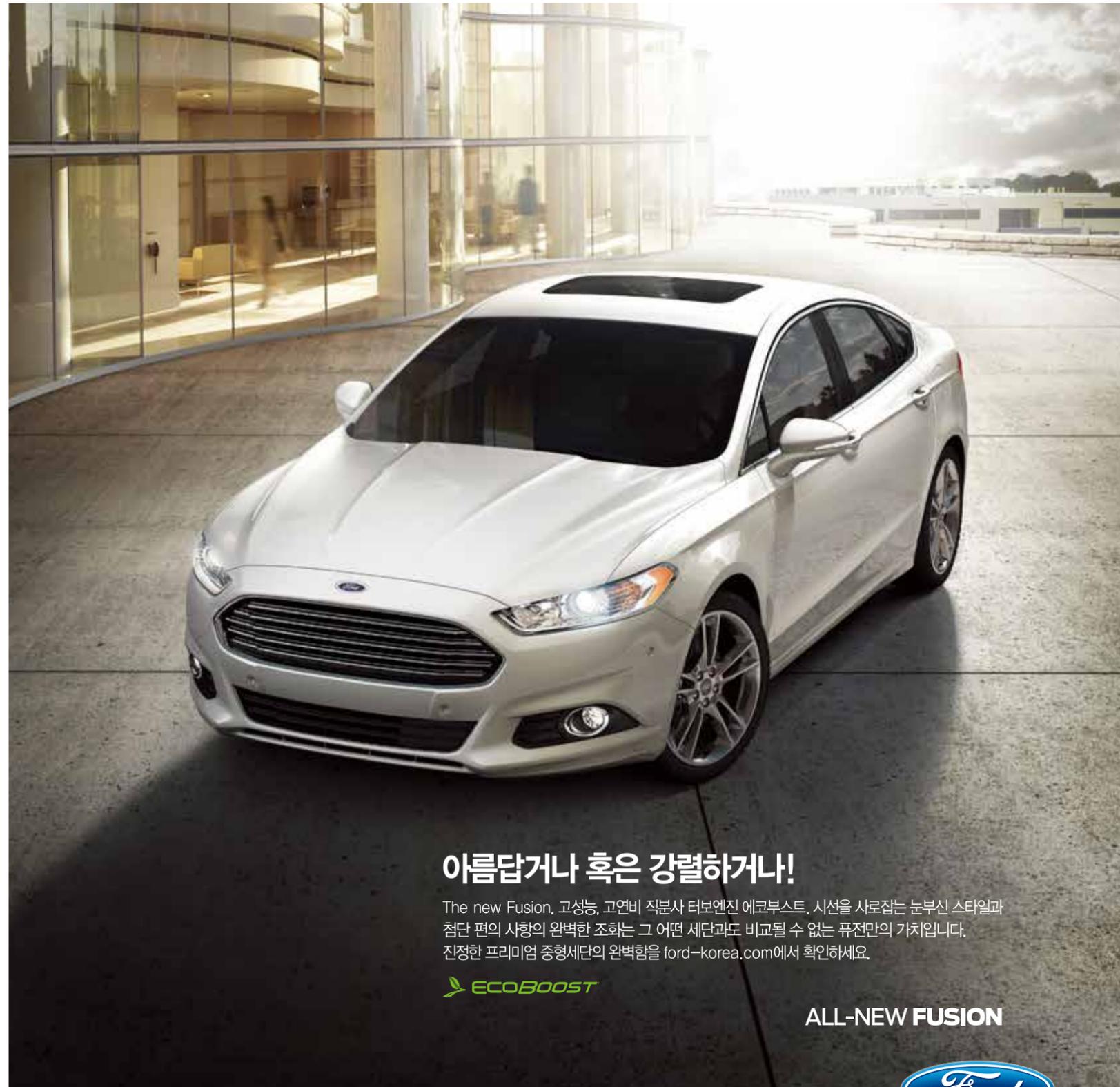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판매성장을 넘어 올해 포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어느 해 보다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결과물을 창출해낸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 '포드 그랜츠'를 비롯해 올해 국내에 첫 도입한 글로벌 유방암 예방 캠페인 '워리어스 인 핑크', 산학협동 프로그램인 '포드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SNS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한 '문화 지원 이벤트', '소셜 캠프' 등 소비자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한층 더 가까워지는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나간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메리칸 머슬카의 상징이자 출시 50주년을 맞이하는 머스탱의 새로운 모델과 링컨 최초의 컴팩트 SUV 등 다양한 차들이 국내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차 출시와 함께 영업 및 서비스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포드가 여러분을 위한 가장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포드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복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정재희



## 아름답거나 혹은 강렬하거나!

The new Fusion, 고성능, 고연비 직분사 터보엔진 에코부스트, 시선을 사로잡는 눈부신 스타일과 첨단 편의 사항의 완벽한 조화는 그 어떤 세단과도 비교될 수 없는 퓨전만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프리미엄 중형세단의 완벽함을 ford-korea.com에서 확인하세요.



ALL-NEW FUSION



Go Further

ford-korea.com

삼성 02)3442-2300	서초 02)535-3800	신사 02)3444-13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부산영 051)758-0075	부산해운대 051)741-5114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퓨전 1.6ℓ : 배기량 1,596cc 공차중량 1,615kg 자동6단 복합연비 10.8km/ℓ(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3.9km/ℓ)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63g/km ▶퓨전 2.0ℓ :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645kg 자동6단 복합연비 10.3km/ℓ(도심연비: 8.9km/ℓ, 고속도로연비: 12.7km/ℓ)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72g/km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 080-300-3673, 02617-4357 \*전국 24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myFord

2013 WINTER

## Play with Ford

### 04 CEO Message

포드가 여러분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08 Ford Story\_ 자동차의 미학을 꿈꾸다. 에셀 포드

포드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의 아들 에셀 포드. 자동차의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중시한 에셀 포드의 업적을 알아본다.

### 10 Ford with Media\_ Watching on Ford

2013년 미디어에서 선보인 포드의 활발한 활동은 2014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2013년 한 해 다양한 미디어에서 활약한 포드의 모습을 총망라했다.

### 12 Smart&Technology\_

####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포드의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과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기술은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물론 품격과 안전까지 책임진다. 이 두 가지 기술을 2014년형 포드 토러스와 함께 소개한다.

### 13 Car Care Tip\_ 안전한 겨울철 차량 관리 규칙

연일 이어지는 영하의 날씨와 눈 내린 뒤 꽁꽁 얼어버린 빙판길 등 겨울철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량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여덟 가지 체크리스트.

### 14 Focus on\_ All-New Mustang

포드 머스탱 50주년을 맞아 혁신적 기술과 세계 최상급 성능으로 무장한 올-뉴 머스탱 6세대가 재탄생했다.

### 16 New Ford Life\_ Experience Ecoboost Engine

포드 삼성 전시장 박춘식 과장, 퓨전과 토러스의 오너 이용준 씨, 자동차 파워블로그 '모터리뷰' 운영자 이진혁 씨가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그들이 경험하고 나눈 에코부스트 엔진의 진면목. 그 진솔한 대화를 (myFord) 독자에게 공개한다.

### 20 Ford to Ford\_ Great Taurus Story

과거 1세대 토러스부터 현재 6세대 토러스까지. 역사적 등장과 수많은 진화,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많은 대중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토러스의 일대기.

### 24 Driving 1\_ Value of Name, Explorer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탐험가 정신은 익스플로러의 정체성이자 존재 가치다. SUV의 대명사 익스플로러 시승기.

### 28 Take 5\_ Be the Explorer

강력하지만 안전하고, 압도적이며 세련되기까지. 진정한 럭셔리 SUV를 완성하는 다섯 가지 기준을 익스플로러가 제시한다.

### 30 Driving 2\_ Smart SUV, Escape

우리의 인식이 이스케이프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기대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는 이스케이프 시승기.

### 32 Gourmet Road\_ 퓨전과 떠난 부산 여행

밝고 활기찬 청색의 기운이 넘실대는 도시 부산. 발 디디는 곳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재질대는 부산의 진면목을 퓨전과 함께 경험했다.

### 38 Theme Travel with Ford\_

#### Go Ford, Go California!

포드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시승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Go Ford, Go California!'에 선발된 행운의 주인공 20명이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선발 경기 응원에 나섰다. 포드자동차와 함께한 5박 7일의 미국 서부 여행.

### 42 Driving Course\_ Face the Winter

포드의 익스플로러와 함께 달린 6번 국도의 여정을 기록했다. 더불어 익스플로러와 즐기는 글램핑까지.

## People

### 46 Ford Interview\_프리미어모터스 임영기 대표이사

프리미어모터스는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일곱 개의 전시장과 일곱 개의 서비스센터를 출범할 만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사다. 사장인 임영기 대표를 만나본다.

### 48 Celebrity Interview\_ 배우 엄효섭

영품 주조연 배우로 드라마, 영화, 연극 무대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팔색조의 매력을 선보이는 배우 엄효섭과 포드 토러스와의 조우.



## 32 GOURMET ROAD 퓨전과 떠나는 부산 여행

밝고 활기찬 청색의 기운이 넘실대는 도시 부산. 발 디디는 곳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재질대는 부산의 진면목을 퓨전과 함께 경험했다.

## Trendy

### 52 Ford Guy\_ Heart Gifts

감동을 주는 첫인상과 사용할수록 가치를 더하는 선물은 포드의 시그니처인 머스탱과 닮아 있다. 선물의 의미를 오랫동안 떠올리게 할 아이템을 엄선해 소개한다.

### 58 Beauty\_ Winter Body Guard

겨울철 메마른 몸을 매끄러운 건강함으로 무장시킬 보다 제품과 케어 팀.

### 60 Gift Item\_ Good Luck, Whisky

전통과 깊이가 살아 있는 신사의 술 위스키. 연말, 지인들과 즐기는 파티에 내놔도 손색없는 품격 높은 위스키 리스트.

### 62 Drive Music\_ Classic Makes me New

요즘 가장 주목받는 음악가들이 재해석하고 재창조한 클래식 음반을 추천한다.

### 63 Ford's Choice\_ With your Winter Holiday

울겨울, 당신의 따뜻한 추억과 함께할 포드의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꼽았다.

## Life Style

### 64 Chef's Table\_ Modern Korean Cuisine

롯데호텔 서울 무궁화의 천상덕 셰프가 선보이는 정갈하고 품격 있는 한식의 세계에 빠져보자.

### 68 Ford Place\_ 新서래마을 탐험

예술영화와 미술 작품을 감상, 새로운 스타일의 프렌치 요리를 맛보는 것 등 서래마을이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포드 방배 전시장에 있는 서래마을의 잇 플레이스를 둘러본다.

### 70 Outdoor Leports\_ Nobly Sports Polo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로 알려진 폴로. 상류사회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던 폴로가 조금씩 대중화되는 추세다. 품격 있는 폴로의 세계에 입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72 Golf Tour\_ Pinx Golf Club

산들의 섬이라 불릴 정도로 신비스러운 분위기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한국 최대의 섬 제주도에 아름다운 골프 코스가 펼쳐진다.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고 있는 핀크스 골프클럽으로 떠나보자.

### 76 Class\_ 시간을 정복하는 자의 기술

인생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고 성공을 앞당기는 전략,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

### 77 Dealer News

포드의 각 딜러사별 주요 뉴스를 모았다.

### 78 Ford News

포드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

### 80 Ford Lineup

포드 전 차종 제원 정보.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처 포드코리아 마케팅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8층

기획·편집 (주)엠큐브파트너스 02-548-1601 디자인 (주)128프로젝트 02-2051-1050

인쇄 (주)미래엔 02-3475-3837

(myFord)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포드자동차(Ford Motor Company)를 설립한 헨리 포드의 아들 에셀 포드. 자동차의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중시한 그가 발표한 링컨 컨티넨탈 카브리올레는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 중 가장 아름다운 차로 손꼽힌다. 50세에 짧은 생애를 마감한 에셀 포드의 업적을 알아보았다.

Editor 이희진

## 자동차의 미학을 꿈꾸다 에셀 포드



## 헨리 포드의 외아들인 에셀 포드(Edsel Ford,

1893~1943)는 어릴 때부터 회사에서 편지 배달 등을 하며 경영 전반에 관한 훈련을 차근차근 받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시건 공장에 자신의 사무실을 갖게 되었고, 1919년 1월 25세에 사장으로 취임한 뒤 본격적으로 포드의 자동차 제작에 뛰어 들었다. 1920년대는 미국 소비자 신용도의 증가로 인해 포드의 시장점유율이 많이 떨어진 시기였다. 당시 포드의 목표는 헨리 포드의 의지에 따라 일반 노동자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값싼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제너럴모터스 같은 다른 경쟁사들은 더 다양한 색상과 고급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신용도가 높은 소비자는 고급 자동차를 구매했다. 포드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극복하고자 1927년 12월 2일, 포드 모델 T를 단종시키고 포드 모델 A를 발표했다.

1922년 에셀 포드는 적극적으로 고급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링컨을 인수하고 머큐리 자동차 사업부를 발족, 1930년대에 중저가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 그리고 그의 오랜 염원이던 고급 자동차 V8 모델을 발표해 성능이나 스타일 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에셀이 경영한 후 포드자동차는 미국의 최고급차와 대통령 전용차 제조업체로 유명해졌다. 링컨은 1923년 캘빈 쿨리지 대통령을 시작으로 1939년부터 1989년까지 여섯 번에 걸쳐 백악관에 특수 제작한 대통령 전용차를 납품했다. 1920년대 에디슨, 후버 등 유명인사와 부호들이 선호하던 링컨은 1936년에 나온 실용적인 모델 제퍼(Zephyr)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고무된 링컨은 1939년 자동차 역사에 빛나는 V12 4.8L 130마력의 컨티넨탈(Continental)을 내놓는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실용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반면, 에셀은 자동차에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부여하길 원해 두 부자 사이에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어쨌든 에셀 포드가 직접 디자인한 '링컨 컨티넨탈 카브리올레'는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 중 가장 아름다운 차로 회자되고 있다.

에셀 포드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1943년 유명을 달리했고, 그 후 포드자동차는 다시 헨리 포드가 경영을 맡았다가, 1945년 에셀 포드의 아들인 헨리 포드 2세가 경영권을 이어갔다. 이후 헨리 포드 2세는 에셀 포드의 업적을 기리고자 아버지의 이름을 본뜬 모델 '에셀'을 선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에셀 자동차가 성공했다면 포드자동차를 위해 열정적이고 화려하게 살다 간 에셀 포드의 업적이 더욱 빛을 발했을지 모르겠다.



##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ALL-NEW LINCOLN MKZ

플루이드 모션의 감성이 빛어낸 링컨 MKZ의 아름다운 디자인은 차 안에서든 계속해서. 만타가오리의 우아한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은 인테리어는 어느 하나 흠잡을 곳 없이 심플하며 완벽합니다. 이처럼 섬세한 디테일과 첨단 테크놀로지는 아름다움을 넘어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 전혀 새롭게, 당신처럼 완벽해진 올 뉴 링컨 MKZ



lincoln-korea.com

송파	02)6928-3000	방배	02)6929-3000	신사	02)3444-1300	삼성	02)3442-2300	서초	02)535-38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평촌	031)425-2212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인천	032)832-0001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부산	051)741-5114	부산	051)758-0075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링컨 MKZ : 배기량(cc) 1,999 공차중량(kg) 1,760 지동6단 복합연비(km/L) 10.2 도심연비(km/L) 8.5 고속도로연비(km/L) 13.3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g/km) 174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24시간 긴급 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 090-300-3673, 02)517-4357 \* 전국 25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업계 판매량 5위로 수입차 업계에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한 포드. 그 배경에는 공격적 미디어 마케팅도 한 몫 했다. 2013년 미디어에서 선보인 포드의 활발한 활동은 2014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2013년 한 해 다양한 미디어에서 활약한 포드의 모습을 총망라했다.

Editor 강미라

## Watching on Ford



1995년 포드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국내 브라운관에서 포드의 TV 광고를 쉽게 볼 수는 없었던 듯하다. 하지만 지난해 'Go Further' 캠페인을 통해 10명의 파워블로거를 체험단으로 내세워 TV CF를 방영하는 등 현재 포드자동차는 국내 시장에서 적극적인 광고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Go Further' 체험단이 직접 출연해 포드 이스케이프의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를 사용하는 모습이나 평행 주차를 도와주는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기능에 놀라는 모습은 포드의 스마트한 기술력으로 소비자의 흥미를 깨우기에 충분했다.

2013년에도 포드는 다양한 CF 시리즈를 방영해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3월에 방영한 포커스 디젤 CF는 평론가 이현준 씨의 포커스 디젤 연비에 대한 솔직한 인터뷰를 담았다. '연비가 좋은 디젤 세단'임을 강조하는 이 CF는 보는 사람이 친숙함과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매력이 있다. 평론가 이현준 씨는 지난 'Go Further' 캠페인에도 참여한 체험단 중 한 명으로, 지난해 보여준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올 초까지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포드 퓨전도 CF를 내보냈다.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세단'이라는 카피가 뜨고, 함께 있던 수많은 차가 사라진 후 퓨전만 유일하게 남아 달리는 영상을 기억할 것이다. 차들이 사라지는 효과는 CG가 아니라 차체 위에 배경을 직접 그려 넣어 연출했다. 이 비하인드 영상은 SNS를 통해 한동안 인기를 끌었다.

8월에는 포드 퓨전이 한 번 더 새로운 CF로 시청자와 소비자를 찾았다. 아찔한 절벽 위를 시원하게 달리다 갑자기 공중으로 차체를 돌려 날아오르는 장면이 이어진다. 순간 슬로모션과 함께 '아~ 하늘을 나는 건 아직...'이라는 익살스러운 내레이션이 등장해 중독성 강한 광고 중 하나로 등극했다.

그리고 9월에는 포드 포커스 디젤이 '고성능 디젤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카피와 함께 역동적이고 임팩트 있는 포드 포커스 디젤만의 매력을 표현했다. '파워풀한 토크', '혁신적 연비', '스마트한 즐거움'을 담아낸 강력한 이미지가 포커스 디젤의 주행 퍼포먼스와 함께 펼쳐져 한순간도 눈을 땔 수 없게 했다.

올 한 해 드라마에서도 포드의 활약은 대단했다. 2월부터 방영한 SBS 주말 드라마 <돈의 화신>과 6월 첫 방영한 SBS 주말 드라마 <결혼의 여신>에서 퓨전, 익스플로러, 포커스 디젤, 머스탱 등의 모델이 대거 등장해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은 것. 드라마 속 개성 강한 포드의 다양한 차종은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을 얻었다. 이 밖에도 tvN 드라마 <나인>에서 포드의 반가운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현재 방영 중인 MBC 일일 드라마 <오로라 공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주말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에서는 머스탱 컨버터블의 남다른 자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포드는 2013년 수차례 판매 기록을 갱신하여 국내 수입차 업계 5위에 등극하는 등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2014년 더욱 강력한 존재감으로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포드의 미디어 속 활약을 기대해 보자.



자동 주차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대용량 트렁크  
 앞좌석 마사지 시트  
 ...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까지

더 이상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는가?  
**2014 NEW TAURUS**

토러스가 드리는 특별한 가치  
 테크놀로지의 가치- 직분사 터보 2.0 에코부스트 엔진과 3.5 Ti-VCT 엔진까지 다양한 선택    경제성의 가치- 동급 최강의 뛰어난 연비

**FORD'S BEST** 5년 10만km 보증서비스 [3년/6만km 소모성 부품 무상 제공 서비스(ESP)]

신사 02)3444-1300	삼성 02)3442-2300	서초 02)535-38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부산수영 051)758-0075	부산해운대 051)741-5114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토러스 2.0L : 배기량 1,999 공차중량(kg) 1,890 지동6단 복합연비(km/L) 10.4 도심연비(km/L) 8.8 고속도로연비(km/L) 13.3 동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g/km) 171 ▶ 토러스 3.5L : 배기량 3,496 공차중량(kg) 1,900 지동6단 복합연비(km/L) 9.2 도심연비(km/L) 7.9 고속도로연비(km/L) 11.7 동급 5등급 복합CO2배출량(g/km) 193 ▶ 토러스 SHO : 배기량 3,496 공차중량(kg) 2,020 지동6단 복합연비(km/L) 8.2 도심연비(km/L) 10.5 고속도로연비(km/L) 10.5 동급 5등급 복합CO2배출량(g/km) 220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24시간 긴급 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 080-300-3673, 02617-4357 \* 한국 25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포드의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과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자동주차시스템)는 새롭고 편안한 것을 찾는 자동차 오너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물론 품격과 안전까지 책임질 두 가지 기술을 2014년형 포드 토러스와 함께 소개한다.

Editor 강미라



# 최

근 미국의 경영 월간지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가 선정한 '2013년 50대 글로벌 혁신 기업'에 포드가 이름을 올렸다. 자동차 제조사로는 유일하게 리스트에 뽑혔는데, 그 이유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밸리에 개설한 기술 연구소, 포드 싱크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 기능,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기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 이 중 2013 올-뉴 퓨전에 포함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Lane Keeping System)'은 카메라 센서로 주행 중 도로 아래쪽을 모니터링해 차가 차선을 이탈할 경우 스티어링 휠 진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기능이다. 뿐만 아니라 차선 이탈 시스템에 압박을 가해 차선 안에 복귀하도록 해준다. 경보음 등으로 위험을 알리는 데에만 그치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ane Departure Warning System)과는 차원이 다른, 능동적으로 핸들 조작에



직접 관여해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술이다.

이처럼 드라이빙의 안전과 즐거움을 혁신적으로 높여주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은 지난 9월 출시한 2014년형 포드 토러스에 더해졌다.

포드 토러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세단으로 1985년 출시 이래 25년여 만에 900만 대 이상 판매된 모델이다. 새로운 포드 토러스는 기존 모델보다 후드 라인을 낮춰 더욱 날렵하고 역동적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여기에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를 더한 리미티드나 SHO 모델이라면, 자동 평행 주차 시스템인,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Active Park Assist) 기능까지 누릴 수 있다. 보다 스마트해진 토러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는 기어를 선택하고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만 조절하면 빈 공간을 향해 스스로 주차해주는 기능이다. 평행 주차에 두려움이 있는 드라이버라도 버튼 하나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초음파 센서로 상황에 가장 알맞은 평행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드라이버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확보된 공간에 맞춰 차 스스로 방향을 바꾼다. 주차에 걸리는 시간은 24~30초.

2009년 미국의 과학지 <포퐁러 사이언스(Popular Science)>가 최고의 신기술로 꼽은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는 이스케이프, 퓨전, 포커스, 익스플로러에서도 만날 수 있다.

연일 이어지는 영하의 날씨와 눈 내린 뒤 꽁꽁 얼어버린 빙판길 등 겨울철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량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여덟 가지 체크리스트.

Editor 이희진

## 안전한 겨울철 차량 관리 규칙



### Check 1 겨울철 예열의 중요성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시동 후 급작스러운 출발은 자동차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날씨가 추울수록 자동차를 예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예열은 열팽창과 수축을 통해 자동차의 모든 부품을 제대로 맞게 해주고, 엔진오일이 충분히 순환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준비 운동을 시켜준다.

### Check 2 타이어 점검

낮은 타이어는 겨울철 빙판길, 눈길 운행 시 교통사고의 주범이다. 낮은 타이어는 즉시 교체하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한다. 미리 스노타이어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스노체인도 함께 준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

### Check 3 부동액 점검, 냉각수와 비율 5대 5

부동액은 냉각수를 얼지 않게 하고, 라디에이터 및 관련 부품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에 겨울철 차량 점검 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여름엔 엔진 열을 식혀주는 고마운 냉각수지만 겨울엔 차질 엔진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영하의 온도에 냉각수가 얼며 라디에이터가 터져 엔진이 고장 나기 때문. 겨울에는 부동액과 물을 5대 5의 비율로 섞어 넣어야 한다. 혹 부동액을 넣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정비소를 방문해 냉각수의 비율을 점검한다.

### Check 4 겨울용 워셔액과 와이퍼 관리

요즘은 워셔액이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용으로 나오지만 혹 여름용 워셔액을 주입했다면 필히 겨울용으로 바꿔준다. 여름용을 겨울에 사용하면 워셔액이 얼어버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아주 추운 날 저녁에 주차하고 아침에 나와보면 와이퍼 날이 얼어 유리에 붙어 있는 난감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주차할 때 와이퍼 날을 세워놓거나 두꺼운 종이를 와이퍼와 유리 사이에 끼워놓자.

### Check 5 배터리 교환 시기

겨울철 시동이 걸리지 않아 당황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겨울철에는 배터리의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전해액의 비중이 낮아져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2~3년 주기 또는 5만~6만km 주행 시 교체해야 한다.

### Check 6 필터의 주기적 교환

겨울에는 대부분 창문을 닫고 운전하므로 차량 내부 환경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미세 먼지에는 진드기나 곰팡이 균, 배기가스의 유해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에어컨 필터를 제때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의 에어컨 필터는 6개월 또는 1만5000km 주행 뒤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 Check 7 뒷유리 열선 점검 필수

겨울철 차량 운전 시 곤란할 때가 차량 앞뒤 유리에 성애가 끼어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다. 전면 유리의 성애는 겨울용 워셔액과 와이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후면 유리에 가득 낀 서리나 눈은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든다. 후면 유리의 서리 방지용 열선을 미리 점검해두자.

### Check 8 주차 시 사이드브레이크는 자제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린 상태로 야외 주차장에 장시간 주차하게 되면 사이드브레이크가 얼어서 풀리지 않을 수 있다. 겨울에는 가급적 평지에 주차하고 주차 시 오토미션은 'P'에, 매뉴얼미션은 1단이나 후진에 놓는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다

# All-New Mustang

2014년, 포드 머스탱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디자인, 혁신적 기술, 세계 최상급 성능을 갖추고 재탄생한 올-뉴 머스탱 6세대를 만나보자. 50년 역사를 기반으로 진화된 정교한 디자인, 3.7L V6 모델뿐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5.0L V8, 새롭게 도입한 높은 연비의 2.3L 에코부스트 엔진 장착 등 당신은 신비로운 머스탱의 세계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Editor 이희진



혁신적 기술과 세계 최상급 성능으로 무장한 '올-뉴 머스탱'이 2013년 12월 5일 전 세계 네 개 대륙의 여섯 개 도시에서 동시에 출시, 포니카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포드 글로벌 제품 개발 담당 라즈 나이트(Raj Nair) 부사장은 "포드 머스탱은 그 어떤 차에서도 느낄 수 없는 열정을 만끽할 수 있다"며 "머스탱 고유의 외형과 사운드, 성능은 머스탱을 경험한 적 없는 사람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머스탱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포드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탱은 50년간 900만 대 이상 판매고를 올렸으며, 이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수천 편의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비디오 게임에 등장했으며, 페이스북에서는 세계 최고의 인기 차량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올-뉴 디자인, 고유의 DNA는 그대로 유지

올-뉴 머스탱 패스트백 모델과 컨버터블 모델 모두 머스탱 디자인 특유의 길게 다듬은 후드와 짧은 후면 덕은 유지하면서 현대적 감각을 더했다. 포드의 북남미 디자인 책임자 머레이 칼럼(Moray Callum)은 "첫인상은 한 번에 결정된다. 올-뉴 머스탱을 보는 순간 머스탱 고유의 특징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올-뉴 머스탱의 업그레이드된 핵심적 디자인 요소는 루프 높이를 낮춰 더 낮고 넓어진 스탠스, 더욱 넓어진 후면 펜더와 트랙, 더욱 가파르게 경사진 전·후면 유리로 매끈해진 라인이다. 과거 머스탱 패스트백 스타일을 재적용해 3분할된 램프가 차례로 작동하는 바 타입 시퀀셜 방향지시등, 상어의 앞모습을 형상화한 시그너처 프런트 페시아와 사다리꼴 그릴의 현대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머스탱 컨버터블 모델은 다중 절연 직물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 보다 고급스러운

외관과 정숙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개폐 속도는 기존 모델 대비 두 배나 빨라졌으며, 루프를 접고 달릴 경우 보다 매끈한 스타일을 자랑한다. 머스탱 역사상 최고의 장인정신이 발휘된 운전석은 항공기 조종석에서 영감을 받아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와 제어장치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계기 장치가 크고 명확해 넓은 운전석의 운전자가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스위치와 손잡이는 인체공학적 기술을 개선해 촉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제어 기능을 개선했다. 또 넓어진 차체 폭과 새로운 후면 서스펜션은 뒷좌석 승객에게 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실용성을 높인 트렁크는 골프백 두 개를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다.

## 머스탱의 놀라운 경험

당장이라도 운전하고 싶게 하는 머스탱만의 핵심 요소로는 외관, 주행 특징, 사운드를 꼽을 수 있다. 올-뉴 머스탱은 이 같은 요소의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모든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킨다. 엔진의 경우 업그레이드된 V6, V8 엔진에 최신 기술의 올-뉴 2.3L 에코부스트 엔진을 새롭게 도입했다.

머스탱 GT는 업그레이드된 밸브 트레인과 실린더 헤드로 최고 출력 425ps(420hp), 최대 토크 53.9kg·m(390lb.-ft.)의 성능을 갖춘 최신 5.0L V8 엔진을 유지했다. 머스탱 GT의 새로운 흡기 매니폴드(Intake Manifold)는 보다 나은 연비, 공회전 안정성(Idle Stability) 및 배기가스 감소 실현을 위해 저속 주행 시 흡기 속도를 개선한 것이다.

머스탱의 에코부스트 엔진은 직분사 방식과 가변식 캠타이밍 기술, 터보차저를 사용해 탁월한 성능과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갖추었다. 특별한 흡기 매니폴드와

터보차저 하우징을 통해 머스탱 운전자가 기대하는 최고 출력 309ps(305hp), 최대 토크 41.5kg·m(300lb.-ft.)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다. 3.7L V6 엔진을 장착한 기본 모델도 304ps(300hp)의 출력과 최대 토크 37.3kg·m(270lb.-ft.) 이상의 성능으로 소비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킨다. 또 올-뉴 머스탱은 수동변속기 업그레이드로 보다 매끄러운 변속이 가능하며,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를 갖춘 업그레이드된 자동 변속 기능을 탑재해 운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 역사상 가장 날렵한 포니카

올-뉴 머스탱은 커브길에서 세계 최상급 역동성 및 주행 성능을 보여주며 머스탱 브랜드의 새로운 핸들링 벤치마크를 제시한다. 전·후면 서스펜션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전륜의 새로운 페리미터 서브프레임(Perimeter Subframe)은 차체의 질량은 줄이면서 강성을 높여 바퀴 제어를 강화해 핸들링, 스티어링, 주행을 용이하게 한다. 제동 성능으로는 역대 머스탱 모델 중 가장 뛰어나며 후륜에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인테그럴 링크 독립식 서스펜션을 장착했다.

## 똑똑해진 포니카

올-뉴 머스탱에는 정보 제공, 제어 및 연결성을 높이는 혁신적 기술을 대거 탑재했다. 기본 탑재한 푸시 버튼 스타트를 갖춘 인텔리전트 액세스(Intelligent Access), 처음으로 음성 인식 컨트롤이 추가된 센터 터치스크린을 구현해 마이포드 터치가 있는 음성 명령 시스템 싱크(SYNC<sup>®</sup>)의 최첨단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장착했다. 뿐만 아니라 트랙 앱스, 마이컬러 계기판과 새로운 셰이커 프로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어 운전자가 취향에 따라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운전자는 머스탱을 제어하면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셀렉터블 드라이브 모드를 탑재해 비포장도로를 달리거나 주말 드라이브 시 토글 스위치로 빠르게 스티어링 강도, 엔진 반응, 변속기, 차체 자세 제어장치를 최적화할 수 있다. 포드의 개선된 안정성 제어 시스템은 각 바퀴의 속도를 제어해 안정된 코너링 성능을 내는 토크 벡터링 기능을 통해 머스탱의 역동성을 극대화한다. 느긋하게 귀가할 때는 촉방 접근 차량 경고 시스템(CTA; Cross-Traffic Alert)이 포함된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BLIS<sup>®</sup>(Blind Spot Information System)가 측면에서 다가오는 차를 운전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차의 양쪽 뒤에 장착된 레이더 센서를 사용한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운전자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싱크 앱을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 50년 역사의 머스탱

2014년 4월 17일은 머스탱 출시 5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든 2015년형 머스탱의 계기판에 질주하는 포니 로고와 함께 'Mustang-Since 1964'를 새긴 배지를 달 계획이다. 그리고 머스탱은 미국의 플랫 록 공장(Flat Rock Assembly Plant)에서 계속 생산될 것이다. 페리카크 수석 엔지니어는 "우리는 처음부터 새로운 머스탱을 만들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했다. 그 결과 속도, 외관, 정교함, 효율성이 개선된 새로운 머스탱을 개발하는 동시에 지난 반세기 동안 사람들을 매혹시킨 야생적 매력은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 모든 머스탱의 진기는 내년 하반기 국내에서도 만나 볼 수 있을 예정이다. 특히 포드에서 직접 생산하는 '머스탱 GT'가 한국에 론칭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왼쪽부터 자동차 파워블로거 '모터리뷰'의 이진혁, 포드 오토 이윤준, 포드 삼성 전시장 박준식 과장

차를 사랑하는 세 남자, 에코부스트를 이야기하다

# Experience Ecoboost Engine

포드 삼성 전시장 박준식 과장, 퓨전과 토러스의 오토 이윤준 씨, 자동차 파워블로거 '모터리뷰' 운영자 이진혁 씨가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그들이 경험하고 나눈 에코부스트 엔진의 진면목. 그 진솔한 대화를 <myFord> 독자에게 공개한다.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이유미



## 에코부스트와의 첫 만남을 말하다

**myFord\_**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포드의 에코부스트 엔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 흔쾌히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준식\_** 먼저 고객을 일선에서 만나는 딜러로서, 에코부스트 엔진에 대한 고객의 반응이 남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특히 토러스의 경우 전장이 무려 5155mm임에도 2000cc 엔진을 탑재했다고 하면 대부분 깜짝 놀랍니다. '힘이 없어 다니겠느냐'는 우려부터 하시죠.

**이윤준\_**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믿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막상 토러스를 시승했을 때의 느낌은 감동이었어요. 힘 있고 매끄러운 데다 정속함까지 갖춘 퍼포먼스가 여지없이 토러스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에코부스트의 매력을 인상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박준식\_** 자동차 파워블로거인 이진혁 님은 굉장히 많은 자동차를 시승하셨을 텐데, 포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진혁\_** 2010년에 토러스 V6 모델을 시승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미국 차'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이 아무래도 컸죠. 포드 하면 내구성도 좋고,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차. 하지만 기름을 많이 먹는 차. 이런 이미지였죠. 실제로 탔을 때 안정감도 꽤 느꼈지만, 기름값이 비싼 우리나라 상황에 과연 맞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윤준\_** 그렇다면 에코부스트 엔진 론칭 후에는 어떠셨나요?

**이진혁\_** 올해 에코부스트 차량을 처음 시승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놀라웠습니다. 2000cc 터보 엔진인데, 3000cc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내더군요. 보통 미국 차의 경우 터보 엔진을 달거나 배기량을 낮춰 연비 효율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차에 맞는 배기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포드는 전 라인에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 들어가는 등 그 확신이 매우 빨랐습니다.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준식\_** 우리나라에도 많은 차종에서 에코부스트 엔진을 탑재해 들어왔고요.

**이진혁\_** 그런 부분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왜 여태까지 안 했을까. 좀 더 빨리 알려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더군요.

## 놀라운 연비 효율을 가능케 하다

**myFord\_** 많은 자동차 파워블로거가 있지만, 모터리뷰는 '연비 리뷰'라는 콘텐츠를 따로 진행하고 있죠. 다른 블로그에서 볼 수 없는 연비 리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포드의 퓨전 에코부스트 2.0의 연비 리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진혁\_** 다른 자동차 블로그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다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집이 부산이라 자주 내려가는 편인데, 이왕 내려가는 거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얼마나 나올까 측정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도 되고요.

**박준식** 고속도로에서 확인해본 에코부스트의 연비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이진혁** 직분사 터보 엔진으로 정속 주행하면 연비가 좋다는 것은 다른 브랜드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 에코부스트 역시 기대가 컸습니다. **출력을 감안할 때 15km/L대만 나와도 크게 선망하는 거라 생각했구요. 실제로 375km를 제한속도에 맞춰 주행한 퓨전의 고속도로 실연비는 15.1km/L로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공인연비가 12.7km/L임을 감안하면 약 19% 증가한 수치죠.**

**이용준** 저는 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장거리 주행은 많지 않지만, 연비 부분에서는 크게 공감합니다. 이전에 타던 국산차와도 주유비로 측정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실제로 실연비 수치를 들어보니 놀랍네요. 주행 속도나 옵션 기능을 사용하는 것 등에 따라서도 연비 차이가 나지 않나요?

**이진혁** 물론 차량과 운전자의 컨디션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주행 속도는 각 고속도로별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퓨전의 경우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어요. 성인 남자 두 명이 탑승했고, 그때가 여름이라 에어컨을 가동했구요. 도로 상황은 교통이 원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용준** 저는 2011년형 퓨전과 토러스 2.0 리미티드 버전을 타고 있어요. **이전에는 국산 준중형차를 끌었는데, 포드로 바꾸면서 한 달 주유비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일정량 주유권이 나오는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주유권 내에서 주유를 해결하고 있어요. 천안에서 세종시 산업단지까지 30km 정도 오가고 있으며, 회사가 식품회사다 보니 꽤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오히려 힘은 좋아져서 편하고, 연비 부담도 없으니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진혁** 퓨전은 차간 거리 조절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오토 하이빔 등의 기능도 매우 유용했어요. 장거리 주행용 차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웠죠.

**박준식** 저도 고객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포드의 '가성비'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높다는 거죠. 에코부스트 엔진 연비에 대한 두 분의 경험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 자부심이 더 생기는 것 같네요.

**혁신과 변화의 아이콘이 된 엔진**

**myFord** 포드의 고효율 에코부스트 3기통 1.0L 엔진이 미국 <엔진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이 선정한 '2013 올해의 엔진(International Engine of the Year 2013)'에 2년 연속 뽑혔다고 합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도 다운사이징 엔진을 선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드의 에코부스트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박준식** 전문 기자단이 투표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걸작'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강력하면서도 높은 연료 효율성, 가볍다는 특징이 있죠. 독일 자동차 잡지 <오토 모토 앤 스포츠>가 선정한 '2013 국제 폴 피에츠 상'을 수상했으며, 영국 황실자동차클럽이 수여하는 '듀어 프로피'도 받았지요.

**이진혁** 전 세계적으로 다운사이징 열풍이 불고 있는데, 포드가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엔진은 엔진 배기량은 줄이고 힘과 연비를 높인 것을 말합니다. 포드는 디젤이 아닌 가솔린엔진으로 이를 실현했구요.**

**박준식** 네. 에코부스트 엔진은 고압력 가솔린 직분사 방식과 터보 차저 및 두 개의 독립된 가변식 캠타이밍 기술을 결합해 엔진 크기와 무게, 소비를 줄인 것은 물론이고 대용량 엔진이 갖는 저회전대 강력한 토크와 즉각적인 반응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출력은 그대로, 주행 성능과 안락한 승차감도 그대로 유지했죠. 최대 20%의 연비 향상과 15%의 배출가스 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용준** 제가 타고 있는 차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니 기분이 좋은데요. 다른 수입차 브랜드와 비교해 더 좋은 엔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셈이네요.

**박준식** 2009년 에코부스트 기술을 적용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총 60만 개 이상 에코부스트 엔진을 생산, 탑재해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가장 작은 1.0L 3기통 엔진부터 강력하고 효율적인 3.5L V06 엔진까지 총 다섯 가지 에코부스트 엔진이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한 에코부스트 엔진은 1.6, 2.0L 두 종류입니다. 퓨전, 이스케이프, 익스플로러, 토러스, 링컨 MKZ에서 만날 수 있는데, 앞으로 디젤엔진을 사용한 포커스 외에 MKX 등 거의 전 차종에 에코부스트 엔진이 적용될 거라고 하네요.

**이용준** 올해까지 북미 모델 90%에 에코부스트 엔진이 적용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1.5L를 론칭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에코부스트 엔진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진혁** 에코부스트는 진정한 다운사이징의 의미를 담은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포드의 이 같은 활약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박준식** 퍼포먼스와 연료 효율을 모두 추구하는 포드 에코부스트 엔진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혁신이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왼쪽부터 순서대로  
**포드 삼성 전시장 박준식 과장**  
 안 타본 차가 없을 정도로 차를 사랑하는 딜러, 박준식 과장. 2006년 입사해 포드만 여섯 대째 타고 있다는 그는 포드자동차의 약진하는 기술력을 몸소 실감하고 있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의 포드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으로 고객을 만나고 있다.  
**오너 이용준**  
 우연히 시승해본 포드자동차의 매력에 푹 빠져 두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 처음엔 독특한 디자인과 외관에 사로잡혔지만, 지금은 묵직한 안정감과 주행 퍼포먼스에 큰 점수를 준다고. 올 6월에 구입한 토러스는 부모님이 더 좋아하신다.  
**자동차 파워블로거 '모터리뷰' 이진혁**  
 어릴 때부터 워낙 차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차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블로그를 시작한 것이 2008년. 첫 시승기 포스트가 큰 인기를 끌면서 방문자 수가 폭발해 2009년에 파워블로거로 선정됐다. 차별화된 콘텐츠와 꼼꼼한 시승 리뷰로 올해까지 연속 4년째 파워블로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http://motor-review.net





1세대 1991 TAURUS\_GL\_SEDMAN

# Great Taurus Story

과거 1세대 토러스부터 현재 6세대의 토러스까지. 역사적 등장과 수많은 진화,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대중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토러스.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한 미래형 자동차 토러스의 일대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Writer 나윤석(자동차 전문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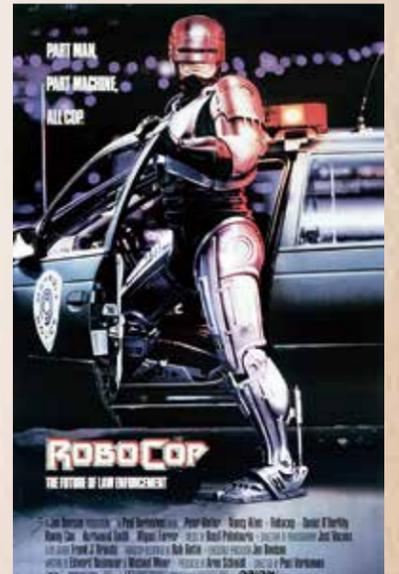
6세대 2014 TAURUS\_SHO

세상이 예수 전(BC)과 후(AD)로 나뉘듯, 미국 승용차의 디자인은 토러스 전과 후로 구분된다. 나는 기독교신자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너무도 잘 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다. 그만큼 포드 토러스가 미국 자동차의 발전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절대 과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토러스 이전의 미국 차는 어땠을까?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 차는 길고 각진 스타일이었다. 앞 얼굴은 변신 로봇이 좋아할 각진 얼굴. 그리고 대부분의 중·대형차는 뒷바퀴 굴림 방식이었다. 그래서인지 스티브 맥퀸의 <블리츠>나 진 해크먼의 <프렌치 커넥션>처럼 자동차 추격 장면이 불만하기는 했다. 직접 당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토러스는 포드가 만든 최초의 앞바퀴 굴림 중대형 세단이기도 하다. 앞바퀴 굴림 방식은 이전에도 소형차에 널리 사용되었지만, 중·대형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토러스 이후 포드는 기함인 링컨 컨티넨탈까지 앞바퀴 굴림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를 가장 공격적으로 적용하는 미국 브랜드가 된다.

최초의 토러스가 등장한 것은 1985년이다. <로보캡>이라는 영화를 아는지. <로보캡>은 부패하고 공권력이 무너진 가까운 미래의 디트로이트를 지키는 사이보그 경찰의 이야기를 다룬 1987년에 나온 SF 액션 영화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로보캡>의 순찰차가 바로 1세대 토러스다. 토러스의 디자인이 미래의 SF적 인물(?)과도 어울릴 만큼 시대를 앞섰다는 증거가 바로 영화 <로보캡>이다. 사업도 시장을 한 걸음만 앞서가면 대성공을 거두지만, 두 걸음이면 완전히 망한다.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선도적이면 세상을 바꾸고 터무니없으면 그냥 사라진다. 토러스의 디자인은 미국 자동차의 디자인 흐름을 완전히 뒤엎는 일대 사건이었으며, 사업적으로도 대성공이었다. 토러스 디자인의 키워드는 곡선과 라디에이터 그릴의 삭제로 대표되는 '공기역학적 디자인'이었다. 토러스 등장 이후 포드는 물론 경쟁자들도 공기역학적 디자인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된다. 1세대 토러스는 발표 직후 <모터트렌드>가 '올해의 차'로 선정하는 등 많은 상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큰 상은 고객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 1985년부터 1991년까지 1세대 토러스는 200만 대를 넘는 기록적인 판매량을 남기며 미국 내 연간 베스트셀러에 바짝 다가선다. 2세대 토러스는 1992년에 선보이자마자 미국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한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2세대 토러스를 1세대의 페이스 리프트 정도로 아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디자인 콘셉트가 1세대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세대 토러스는 도어 네 개를 제외하고는 지붕을 포함한 외부 패널이 모두 새롭게 만든 새 모델이었다. 1세대 디자인 콘셉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뜻이다. 어쨌든 고객은 베스트셀러인 토러스가 새 단장을 하고 나왔으니 더 이상 구매를 늦출 이유가 없어졌다. 기술적으로도 1세대 토러스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므로 신뢰성도 최고였다. 그 결과, 판매량으로 시작한 2세대 토러스는 1995년 모델이 바뀔 때까지 왕좌를 유지하는 기염을 토한다. 미래형 디자인이 시장의 주류로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완벽한 것을 더욱 완벽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성공한 디자인을 마치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3세대 토러스의 디자이너들에게 주어진 커다란 숙제였다. 그리고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일본의 경쟁자들과 확실하게 차별화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도 무거웠다.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들은 숙제를 잘 못했다. 아니, 너무 과하게 했다. 디자인이 지나치게 미래로 날아간 것이다. 한 걸음만 앞서야 하는데, 까마득하게 미래로 달려가버렸다. 1996년 선보인 3세대 토러스는 차체의 실루엣, 헤드라이트 모양, 심지어 뒷유리까지 외관 디자인을 모두 타원을 모티브로 했다. 3세대

토러스의 디자인은 미국 자동차의 디자인 흐름을 완전히 뒤엎는 일대 사건이었으며, 사업적으로도 대성공이었다. 토러스 디자인의 키워드는 곡선과 라디에이터 그릴의 삭제로 대표되는 '공기역학적 디자인'이었다.





1 2세대 1995 TAURUS\_SEDAN  
 2 3세대 1996-1997 TAURUS\_SEDAN  
 3 4세대 2000-2003 TAURUS\_SEDAN\_24V\_DOHC  
 4 5세대 2008 TAURUS  
 5 6세대 2011 TAURUS\_SHO  
 6 6세대 2014 TAURUS



토러스는 20여 년이 지난 요즘에야 한창 인기 있는 4도어 쿠페 같은 실루엣을 너무 일찍 세상에 내놓았다. 그 당시에는 외계 우주선 같다는 혹평을 들을 정도로 디자인이 앞서간 것이다. 센터 콘솔의 라디오-에어컨 통합 패널도 기울어진 타원 모양으로 디자인했는데, 업계 표준인 DIN 규격의 라디오 슬롯과 호환되지 않아 과도한 스타일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DIN 규격으로 제작되는 순정 오디오가 드물 정도로 자동차 메이커에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역시 3세대 토러스는 너무 빨랐던 것이다. 당연히 판매 실적은 떨어졌다. 1996년 첫해는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렌터카로 채우는 등 가까스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켰지만 그것이 전부다. 하지만 3세대 토러스는 훌륭한 자동차였다. 달리고 서는 기본기에 관한 한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받은 것이다. 단지 디자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먼 미래로 갔을 뿐이다.

그래서 2000년에 등장한 4세대 토러스는 시계를 약간 뒤로 돌렸다. 타원이 대세였던 3세대에 비해 좀 더 직선이 살아 있는 단정한 디자인으로 되돌아왔다. 쿠페 같던 트렁크 부분도 보수적인 세단의 형태로 돌아왔다. 이와 함께 생산 원가의 합리화를 통해 보다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등 잃어버린 왕좌를 되찾기 위해 환골탈태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일본 자동차가 이미 대세였고, 포드의 경영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포드 경영진은 모델 라인업의 재편을 원했고, 포드가 전통적으로 강했던 픽업 등 트럭 시장과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SUV 시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들의 눈에 하향세를 보이던 토러스는 구조조정의 대상일 뿐이었다. 시카고 공장이 2005년 6월 25일에 마지막 토러스를 생산했으며, 토러스 왜건은 같은 해 12월 8일을 끝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은 세단은 2006년형부터는

일반 판매를 중단하고 렌터카나 업무용 차량 등의 물량 고객에게만 인도되었다. 이 사실상의 사형선고는 결국 공식화되었다. 2006년 10월 27일, 마지막 토러스가 공장을 떠나는 것으로 토러스는 단종되었다. 포드의 전설적 모델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그것도 아무런 행사나 알림도 없이. 그리고 토러스의 역할은 중형차인 퓨전(Fusion)과 대형차인 파이브 핸드레드(Five Hundred)가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한 결정이 경솔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주역은 2006년 말에 새로운 CEO로 취임한 앨런 머랄리(Alan Mulally). '원 포드 전략'으로 처절한 구조조정을 완성해 포드를 구해낸 방정한 경영자인 그는 토러스가 그렇게 쉽게 버려서는 안 될 포드의 소중한 자신임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토러스의 역할을 대신하기로 한 대형차 파이브 핸드레드의 후속 모델이 오히려 토러스로 이름이 바뀌어 2007년 시카고 모터쇼에 첫선을

보였다. 바로 5세대 토러스다. 5세대 토러스는 2007년(정확하게는 2008년형)부터 2009년까지 짧은 생을 살았다. 북미 시장에서만 토러스로 불렸을 뿐 해외에서는 여전히 파이브 핸드레드로 불렸다. 리먼 사태의 여파로 얼어붙은 경제 상황 때문에 판매량은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5세대는 토러스의 전체 역사에 중대한 전기가 되었다. 첫 번째는 토러스의 전통을 다시 이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중대형 모델이던 토러스가 풀 사이즈 대형차로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웅의 귀환은 6세대 모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6세대 토러스는 또 한 번 디자인 혁신을 가져온다. 이전까지의 토러스가 곡선을 주제로 한 부드러운 콘셉트였다면, 6세대에 이르러서는 커진 차체에 걸맞은 힘과 존재감을 강조하는 강인한 직선 위주의 디자인으로 탈바꿈했다. 또 유리창 면적이 줄어들면서 실내의 프라이버시는 더욱 존중되어

고급차 분위기가 물씬하다. 하지만 걸만 강해진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토러스는 첨단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미래형 자동차이기도 했다. '에코부스트'로 통칭되는 포드의 미래형 고성능-고효율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 라인업과 풀 타임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충돌 및 사각 경보 시스템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 등 6세대 토러스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자동차 중 하나가 되었다. 즉, 다시 한번 미래를 선도하는 리더로 태어난 것이다. 2013년형과 함께 이루어진 페이스 리프트는 디자인뿐 아니라 조종 및 제동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등 거의 풀 체인지에 필적하는 변화로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듯 포드 토러스는 단순한 모델 하나가 아니다. 포드, 아니 미국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바꾼 역사의 전기가 된 모델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에 공기 역학적 디자인을 도입했으며, 앞바퀴 굴림의 한계를 무너뜨렸다. 자동차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포드에는 다섯 개의 역사적 전기가 된 모델이 있다. 그들은 자동차를 생활필수품으로 만든 '모델 T', 사나이의 로망이자 포니 카의 조상인 '머스탱', 포드 소형차의 대명사 '에스코트', 픽업트럭의 절대 강자 'F-150',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토러스'다." 사실 토러스는 우리나라의 수입차 대중화에 앞장선 우리에게도 남다른 모델이다. 수입차가 거의 없던 1980년대부터 포드 토러스는 우리나라를 달렸다. 주한미군용 아리랑 택시의 주력 모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아자동차를 통해 선보인 토러스의 형제 차인 머큐리 세이بل은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수입차 넘버원을 차지하는 베스트셀러였다. 2014년, <로보캡>이 돌아온다고 한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토러스를 순찰차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진화된 모습을 기대한다. 토러스가 진화한 것만큼 그가 해낸다면, 영화는 대박을 칠 것이다. 필자가 보증한다. 아니, 토러스가 보장하는 것이겠다.



# Value of Name, Explorer

5세대까지 이어져온 익스플로러의 역사는 도전과 탐험 정신의 연속이었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탐험가 정신은 익스플로러의 정체성이자 존재 가치다. 이름값은 익스플로러가 SUV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한 원동력이다.

Writer 임유신(자동차 칼럼니스트) Photographer 전세훈

**사** 램은 살면서 의지없는 상관없는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이 의지 없는 책임은 '값'이라 불린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을 해야 하고, 이름이 근사한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한다. 이뿐이 아니다. 체격이 좀 있는 사람은 덩치값, 똑똑한 사람은 머리값이 따라붙는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모습 또는 주변에 인식되는 사실에 의한 책임이 따른다. 메이커의 제작 의도와 별개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무리 없이 맞춰야 하기에 막중하면서도 완수하기 쉽지 않은 책임이다.

포드는 주요 SUV 모델에 'e'로 시작하는 이름을 붙인다. 현실에서 탈출(Escape), 탐험 또는 원정대(Expedition), 탐험가(Explorer) 등 SUV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콘셉트로 통일했다. 이 중 익스플로러는 SUV의 대명사로 통한다. 익스플로러는 1990년 3월에 등장했다. 한때 한 해 40만 대 이상 팔리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20년 남짓한 세월 동안 600만 대 이상 도로로 쏟아져나왔다. 익스플로러 덕분에 SUV 시장이 확대되었고, SUV는 시장의 핵심 세그먼트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세그먼트에 대한 탐험가 정신을 발휘한 결과다. 익스플로러가 이름값을 제대로 한 셈이다. 이렇게 전통과 인기를 통해 쌓아올린 이름값 덕분에 익스플로러는 포드 픽업과 더불어 미국과 포드를 상징하는 자동차로 통한다.

현재 익스플로러는 5세대 모델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탐험가 정신을 발휘해왔는데, 5세대 신형은 그 어느 때보다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다운사이징이다. 덩치 큰 SUV에는 큰 엔진이 달려야 한다는 상식을 깨고, V8을 과감히 버렸다. V6의 배기량도 4.0에서 3.5L로 줄였다. '작은 엔진에 대한 탐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포드는 길이 5m에 무게 2.1t이나 되는 몸집에 2.0L 에코부스트 엔진을 집어넣는 대모험을 감행했다. 상식을 깨는 수준을 넘어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대 사건이다. 터보와 직분사를 이용해 2.0L 엔진으로 237마력과 34.6kg·m의 넉넉한 힘을 만들어낸 기술력이 일궈낸 성과다.



26 | DRIVING 1

3.5L V6도 이전에 비해 배기량을 줄였지만 힘은 더 강해졌다. 최고 출력은 294마력, 최대 토크는 35.3kg · m로 섀시 섀시 6단 자동변속기와 조화를 이룬다. 넉넉한 힘이 부드럽게 뿜어져나와 우직하고 안정감 있는 승차감과 어우러진다. 파워 트레인과 하체가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어 SUV 특유의 편안하고 여유로운 주행 감각이 제대로 살아난다. 익스플로러의 주행 감각은 한마디로 자연스러움이다. 무게를 잊을 만큼 매끈하게 속도를 올리고, 큰 덩치를 잊을 만큼 안정감 있게 움직인다. 딱히 거슬리거나 부족한 부분은 도드라지지 않고,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따라주니 불편함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요즘 SUV는 도심의 아스팔트를 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익스플로러 또한 그런 추세를 따르지만, 오프 로더의 본성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인텔리전트 4WD와 결합한 지형 관리 시스템은 도로의 한계를 허물어버린다. 다이얼을

돌려 정상(Normal), 진흙(Mud), 모래(Sand), 눈(Snow) 등 도로 상황에 맞추기만 하면 지형에 맞는 최적의 상태로 바뀐다. 이 다이얼에 손을 대는 순간 익스플로러의 이름값은 운전자에게 넘어간다. 운전자는 마음먹기에 따라 어떠한 지형도 과감하게 헤치고 나가는 탐험가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다. SUV는 키가 크고 박스형이기에 모양새를 다듬는데 한계가 있다. 각지고 둔중한 스타일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덩치가 크면 아름답고 매끈하게 다듬기가 더욱 어렵다. 익스플로러는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탐구를 시도, 큰 덩치를 날렵하고 세련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려냈다. 경사지게 내려가는 프런트, 포드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한 굽직한 세 개의 바로 이루어진 그릴, 날렵하게 치켜올라간 헤드램프는 강인하고 세련된 마스크를 완성하는 요소다. 전면의 역동적 분위기는 경사진 C-필러와 상하 폭이 좁은 윈도를 지닌 옆모습으로 이어진다. 편편하고 각진 뒷모습은 SUV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정체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리어 램프는 면적을 최소화했지만 LED로 포인트를 주어 오히려 강렬하게 눈에 띄는 시각적 효과를 낸다. 익스플로러의 스타일은 매우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그동안 대중적인 자동차 자리를 지켜왔지만, 이제는 고급 SUV라 불려도 손색없는 수준이다. 스타일 변화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이 또한 이름값에 걸맞은 탐험가 정신을 발휘한 결과다. 익스플로러의 실내에 들어서면 마치 미지의 동굴에 들어선 듯 낯설고 긴장된다. 전자식 계기반과 각종 기능이 집약된 듯한 센터페시아 모니터, 그리고 터치로 작동하는 센터 패널을 어떻게 조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조작 방법을 알아내고 기능을 익히는 일은 일종의 탐험이다. 탐험은 긴장되는 일이지만 긴장감 못지않게 흥미를 더한다. 실제로 익스플로러의 기능을 조작해보면 걱정할 것만큼 어렵지 않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1 무게감을 잊을 만큼 매끈한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는 익스플로러 2 계기반 속도계 양옆에 달린 LCD창에는 다양한 정보를 띄울 수 있다. 3 익스플로러의 길이와 폭은 각각 5m, 2m에 높이도 약 1.8m나 된다. 4 익스플로러는 경사지게 내려가는 프런트, 포드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한 굽직한 세 개의 바로 이루어진 그릴, 헤드램프는 강인하고 세련된 마스크를 지녔다.



Explorer Check Point

- 1 길이 5m에 무게 2.1t의 몸집에 2.0L 에코부스트 엔진 장착
- 2 인텔리전트 4WD와 결합한 지형 관리 시스템
- 3 파워폴드 스위치 하나로 3열 시트를 모두 접을 수 있다.



때 사용법을 따로 익히지 않아도 몇 번 만져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익스플로러의 실내 기능도 매우 직관적이다. 손가락만 잘 움직인다면 쉽게 기능을 찾아내고 익힐 수 있다. 계기반 속도계 양옆에 달린 LCD창에는 다양한 정보를 띄울 수 있다. 마치 스마트폰이 계기반에 들어 있는 것처럼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가 눈에 쏙 들어오는 비주얼로 표현된다. 자동차의 발전 속도는 빠르지만 IT 분야는 그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IT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하더라도 현 시점보다는 늦은 기술이 들어가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익스플로러는 실시간으로 현 시점의 IT 트렌드를 반영하듯 첨단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이름값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덩치값이다. 익스플로러의 길이와 폭은 각각 5m, 2m에 높이도 약 1.8m나 된다. 이 크기가 만들어내는 실내 공간은 여유

그 자체다. 익스플로러는 7인승이다. 성인도 앉을 수 있는 3열을 갖춰 미니 밴 역할도 동시에 해낸다. 3열을 세우고도 짐 싣는 공간이 거의 600L에 달한다. 사람만 타고 짐은 싣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애초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다. 3열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접히기도 하고 바닥으로 수납되기도 한다. 2열과 3열을 모두 접으면 코볼스 한 마리는 거뜬히 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넓은 공간이 펼쳐진다. 요즘 같은 캠핑 전성시대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싣고 사람도 편하게 앉아 갈 수 있으니 트렌드에도 잘 들어맞는다. 초창기 오프로드 주파 능력과 공간 활용을 내세우며 등장한 SUV의 성격은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하게 변하고 세분화되었다. 스포츠카 못지않은 동력 성능을 지닌 SUV도 있고, 오프로드 기능은 빼버리고 오로지 아스팔트길만 달리게 만든 모양만 SUV도 있다.

초호화 럭셔리로 꾸민 값비싼 SUV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가치와 성격이 변할수록 본질에 대한 갈구는 커지게 마련이다. 익스플로러는 'SUV란 그때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을 제시한다.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직접 경험하면 "그래, SUV는 이런 맛에 타는 거지!"라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SUV 시장의 개척자로서 오랜 세월 갈고닦은 노하우에서 나오는 탄탄한 기본기 덕분이다. 익스플로러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타고난 운명일지 모른다. 끊임없이 탐험가 정신을 발휘해 도전해야 하는 운명.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에 큰 부담이 되겠지만, 그만큼 익스플로러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름값이야말로 익스플로러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큰 인기를 누리는 비결이다.

강력하지만 안전하고, 압도적이며 세련되기까지. 진정한 럭셔리 SUV를 완성하는 다섯 가지 기준을 익스플로러가 제시한다.

Editor 감미라

# Be the Explorer

## 1 파워 리프트 게이트

리프트 게이트가 열릴 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다. 덕분에 천장이 낮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파워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여성이나 노약자도 손쉽게 문을 닫을 수 있다.

## 2 뒷좌석 안전벨트 에어백

운전석과 조수석 앞, 1열에서 3열 시트까지 측면 에어백이 있는 것은 물론 2열 시트에는 뒷좌석 안전벨트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 세계 최초로 안전벨트 안쪽에 원통형 에어백을 내장한 것으로, 포드가 유일하게 선보이는 특허 기술이다. 돌발 상황 시 다섯 배 이상 충격을 분산시킨다. 이러한 노력으로 익스플로러는 2011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안전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얻었으며, 2011년 뉴욕 국제 모터쇼의 세계 교통안전 심포지엄에서 교통안전 대상을 수상했다.

## 3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동급 유일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과 제동 보조 기능을 갖춘 충돌 경고 장치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전방에 달리고 있는 차와 거리를 유지해준다. 정속 주행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앞차와 차간 거리를 미리 설정한 세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해 유지해주는 것.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은 레이더 센서가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위험을 알린다. 또 이 시스템은 미리 제동력을 비축해두었다가 제동 반응을 극대화한다.

## 4 지형 관리 시스템(TMS)

인텔리전트 지형 관리 시스템(Terrain Management System)은 인텔리전트 4WD와 결합되어 달리는 중에도 간단히 다이얼을 돌리는 것만으로 굴림 방식의 특성을 매끄럽게 바꿔준다. 정상, 진흙길, 눈길, 모래, 힐 디센트 컨트롤의 다섯 가지 모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창밖 풍경과 가장 비슷한 그림으로 다이얼을 돌리기만 하면 험난한 주행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으며, 주행 중 차체 제어 기능을 바꿀 수 있다.

## 5 트레일러 진동 제어장치(TSC)

트레일러 진동 제어장치(TSC)와 새롭게 추가된 힐 스타트 어시스트(Hill Start Assist)는 견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트레일러의 좌우 흔들림이 감지되면 TSC는 익스플로러와 트레일러 모두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엔진 회전 속도를 줄이면서 필요한 브레이크 제동력을 가한다.





1

## Great illusion Escape 1.6 EcoBoost™

이스케이프는 기대 이상의 수준을 보여준다. 생각한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차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그 수준이 실제 이스케이프의 모습이다. 우리의 인식이 이스케이프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뿐이다.

Writer 임유신(자동차 칼럼니스트) Photographer 전세훈



2



3

1 이스케이프의 이름에 걸맞게 영종도 바다 앞에서 있는 이스케이프 2, 4 날렵하고 다부진 디자인의 이스케이프 후면 3 곡선과 각을 조화롭게 배치해 역동성과 아늑함이 살아 있는 실내 5 1.6L 에코부스트 엔진의 파워를 고스란히 실감할 수 있는 주행



4

5

**착**각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왜곡된 사실을 진리로 착각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은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착각까지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이스케이프를 탔을 때, 엔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엔진 커브나 이름표에도 배기량을 뜻하는 숫자는 적혀 있지 않기에 감으로 알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1.6L와 2.0L 에코부스트가 올라간다는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혼란은 찾아온다. 실내 구성이나 옵션을 보면 1.6L 버전 같은데 막상 달릴 때 느껴지는 힘은 1.6L가 아니다. 터보를 달았다고 해도, 이 정도면 1.6L 이상은 될 텐데... 결국 등록증에 적힌 배기량을 보고 1.6L 버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정말 1.6L가 맞는지 계속 의문이 가지지 않았다.

1.6L 에코부스트 엔진의 파워는 기대 이상이다. 최고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25.4kg · m로 자연흡기 2.0L급 힘을 낸다. 기대 이상의 파워를 체험하면 1.6L는 분명 아니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2.0L는 이보다 강력하다. 최고 출력은 243마력, 최대 토크는 37.3kg · m에 이른다. 가솔린 3.0L와 맞먹고 최대 토크로만 따지면 3.5L급에 해당한다. 에코부스트 엔진은 작은 배기량으로 큰 배기량에 해당하는 힘을 낸다. 눈속임이나 수치 조작이 아니다. 큰 엔진으로 착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만한 성능을 갖추었으니 '위대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스케이프를 타는 동안 위대한 착각은 계속 이어진다. 분명 포드인데 스타일은 미국 차가 아닌 유럽 차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 날렵하고 다부지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뽀싹 풍긴다. 이스케이프는 실제로 유럽 포드가 추구해온 키네틱 디자인을 적용했다. 원 포드 정책에 따라 전 세계에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면서 유럽 스타일을 비중 있게 반영한 결과다. 실내 또한 과거 이스케이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주었다. 키네틱 디자인의 핵심은 서 있어도 달리고 있는 듯한 역동성이다. 이 분위기는 실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곡선과 각을 조화롭게 배치해 역동성과 아늑함을 동시에 살렸다. 포드 모델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은 싱크+마이포드터치 시스템은 이스케이프에도 그대로 달려 있다. 마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다루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만큼 직관적이고 편하게 쓸 수 있다. 이스케이프의 길이는 4.5m로 국내 기준으로 준중형급에 속한다. 하지만 실내에서 느끼는 체감 크기는 중형으로 착각할 정도로 넓고 여유롭다.

움직임은 세단으로 착각할 만한 수준. 전복억제 주행안정장치와 커브 컨트롤, 토크 벡터링이 결합해 바닥에 착 달라붙는 접지력으로 롤링을 최소화한다. 1.6 모델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6km다. 가솔린인 데다 차의 크기와 무게, 출력 등을 감안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동급 디젤에 비하면 연비는 낮지만 그에 상응하는 가솔린엔진의 부드럽고 정숙한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때로는 상식이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분명히 생각하는 수준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착각하게 된다. 이스케이프는 각 요소에서 기대한 것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 단계 더 높은 차로 착각하게 된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수준이 실제 수준이다. 그만큼 이스케이프는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 차이가 '위대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 Escape Check Point

- 1 1.6L 에코부스트 엔진은 작은 배기량으로 큰 배기량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다.
- 2 포드 모델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은 싱크+마이포드터치 시스템 장착
- 3 전복억제 주행안정장치와 커브 컨트롤, 토크 벡터링이 결합된 기술의 집약

# 부산

## 퓨전과 떠난 부산 여행 바다와 도시 위에 살인 이야기

떠나기 전 느낀 서울의 추위가 무색할 만큼 부산의 초겨울 햇살은 눈부시고 따뜻했다. 밝고 활기찬 청색의 기운이 넘실대는 도시. 발 디디는 곳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재발대는 부산의 진면목을 퓨전과 함께 경험했다.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이유미





**해안 도로를 달리며 만끽하는 부산의 정취**  
 부산의 바다 하면 대부분 해운대나 광안리를 떠올리지만, 현지인들은 화려함이나 볼거리는 덜할지 몰라도 고즈넉하고 아늑하기만 멋이 있다는 해변항을 추천하곤 한다. 이번 여정은 부산의 해변선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어갈 계획이라 기장에 위치한 '대변항'을 첫 목적지로 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뽑힌 곳. 지체 없이 퓨전의 스타어링 힐을 돌렸다. 작은 항구지만 잔잔한 바다와 맑은 하늘, 가만히 일렬로 서 있는 고기잡이배들이 정겹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의외 모습을 보기라도 한 듯, 부산에서 만난 대변항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다. 대변항 앞에 떠 있는 작은 섬 '죽도'는 기장면의 하나밖에 없는 섬. 사유지라 출입을 통제하지만 최근에는 구름다리가 생겨 물에서 쉽게 갈 수 있다. 대변항은 국내 최대 멸치 산지이며 봄철이면 멸치 축제를 크게 연다. 살이 연해 맛이 좋은 '기장 멸치'가 유명하다. 멸치잡이를 하는 모습이 장관이라 많은 관광객이 몰려든다. 봄이 아니어도 이곳을 찾을 만한 이유는 또 있다. 동쪽 해안을 끼고 달리는 코스인 대변~월전, 일광~임랑 해안 도로를 달릴 수 있기 때문. 대변항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월전마을의 해안길이 가장 아름답고 한가롭다는 평이다. 도로가 잘 정비된 편은 아니지만 에코부스트 2.0L를 탑재한 퓨전의 매력에 호기려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월전마을에 이르면 '황학대'가 있는 죽성리 포구 끝자락까지 가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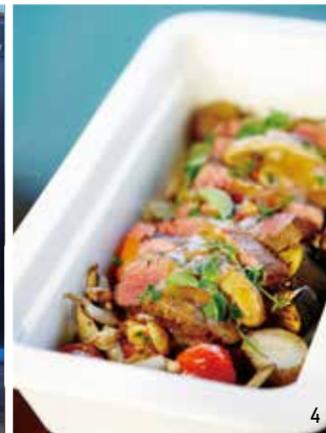
것도 추천한다. 황학대는 고산 윤선도가 7년간 유배 생활을 한 곳이다. 여기서 해안길이 끊어지지만 일광해수욕장 쪽으로 가면 임랑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문의 051-709-4423**  
**침표가 있는 잇 플레이스, 송정해수욕장**  
 다시 대변항을 거쳐 송정으로 향했다. 중간 즈음에서 만날 수 있는 '해동 용궁사'는 꼭 가볼 만한 곳이다. 산중 사찰이 아닌 수상 법당이라 쉽게 볼 수 없는 풍광을 자랑한다. 대웅전 앞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해수관음대불이 있다.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은 이뤄준다는데, 그 영험함을 느끼고 탁 트인 바다 풍경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용궁사 5분 거리에는 오랑대공원이 위치해 있다. '오랑대공원'은 옛날 시장이란 벼슬을 한 선비 다섯 명이 기장에 유배 온 친구를 찾아와 절경을 취해 시를 읊으며 음주가무를 즐긴 곳이다. 오랑대에 서면 대변항이 바라보인다. 바다를 가로지른 기암괴석 끝에는 용왕신을 모신 용왕제단이 서 있다. 오랑대를 품은 연화산 가까운 기슭에는 '해광사'가 있다. 파도 소리와 대웅전의 목탁 소리가 묘하게 섞여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해광사를 나와 해안로를 마저 달리면 '송정해수욕장'이 나온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객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현지인이 조용하게 산책을

1 기장해안로를 따라가다 만난 대변항의 밤 풍경  
 2 동해남부선 철길이 지나 달맞이언덕의 호젓한 분위기  
 3 프랑스의 '살롱드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아데초이 내부  
 4 스타 셰프 레이먼 킴이 운영하는 테이블온더문 로스트비프  
 5 오랑대공원의 풍광과 어우러진 퓨전의 모습  
 6 아데초이에서 직접 만든 타르트와 마카롱  
 7 달맞이언덕에 있는 추리문학관에서는 세계 문호들의 귀한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즐거곤 하던 이곳이 요즘은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졌다. 덕분에 근처에 바다 전망을 자랑하는 분위기 좋은 카페와 레스토랑, 펜션이 속속 생기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동해와 남해 두 바다에 맞닿은 지형 때문에 1년 내내 서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 1996년 서핑스쿨이 처음 들어섰다.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선 거리를 걷다 보면 서퍼들이 운영하는 이국적인 서핑스쿨을 종종 만날 수 있으며, 1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 직접 배울 수 있다.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712-2 문의 051-749-5800**

**Gourmet Guide 아데초이**

바다가 좋아서 이곳 송정해수욕장에 자리 잡은 지 3년. 일본에서 파티시에를 공부한 최은석 대표가 프랑스의 '살롱드페' 문화를 한국에 선보이고자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저마다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카페 문화와는 또 다른, 우아함과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전통 있는 조리 방법의 디저트를 음미하는 것이 '살롱드페'다. 아데초이에서는 정성으로 직접 만든 잼과 마카롱, 타르트, 쿠키 등 황홀한 디저트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크레페, 팬케이크, 샌드위치 등의 브런치도 인기 있다. 테라스에서 펼쳐지는 평화로운 송정해수욕장의 경치는 덩이다.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446-10 문의 051-701-1357**





1, 2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사이에 위치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크림색 요트들 3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엘 올리브 내부 4 자연송이와 활전복, 은행 등을 가미한 엘 올리브의 시즌 파스타 메뉴 5 헌 잡지와 서적이 가득한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와 이야기가 있는 거리, 달맞이언덕**  
 송정해수욕장에서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와우산 종턱에 고갯길 하나 있다. '달맞이언덕'으로, 뱃나무와 소나무가 늘어선 8km의 해안 도로다. 드라이브하기도 제격이지만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이라 잠시 휴전을 세워두고 나섰다. 달맞이언덕에는 예쁜 카페와 레스토랑은 물론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곳곳에 있어 볼거리가 많다. 조현화랑, 갤러리 몽마르트, 김재선갤러리, 맥 화랑, 갤러리 화인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바나나통갤러리'는 동해남부선이 지나는 철길 옆에 노란색 판자 건물이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달맞이언덕 초입에 있으며 주로 젊은 작가들의 기획전이 열린다. 이외에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문학 전문 도서관 '추리문학관'도 추천한다. 추리소설가 김성중 씨가 1992년 설립한 곳. 세계 문호들의 진귀한 사진을 볼 수 있으며, 차 한 잔 시켜놓고 추리문학의 매력에 맘껏 빠져볼 수 있다. 부산사에서 지정한 달맞이언덕 걷기 코스 '문탠로드'를 따라가보는 것도 좋다. 코리아아트센터 맞은편에서 시작된다. 부드러운 흙길과 해송 숲 사이를 지나는 동안 바닷바람을 타고 솔향기가 코끝을 간질인다. 문탠로드의 매력은 달빛이 비추는 밤에 즐길 때 심분 발휘된다. 해가 저도 밤 11시까지 가로등을 켜고, 매월 음력 보름 전후 토요일에는 문탠로드 따라 걷기 행사를 한다.

**\*바나나통갤러리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1076-2 문의 051-741-5106**  
**\*추리문학관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1483-6 문의 051-743-0408**

**Gourmet Guide 테이블온더문**  
 스타 셰프 레이먼 김이 바다가 보이는 달맞이언덕 위에 문을 연 레스토랑 '테이블온더문'. 북미와 남미,

유럽, 스페니스 등의 스타일을 접목해 다른 곳에선 쉽게 만날 수 없는 색다른 메뉴를 선보인다. 덕분에 오픈한 지 1년밖에 안 된 곳임에도 부산의 핫한 고메 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통후추를 뿌려 오븐에 바로 구워내 고기의 육질을 그대로 살린 로스트비프, 바질과 잣으로 만든 페스토 크림을 얹은 바질 프라이드 크림 파스타, 구운 가지와 스페인식 오믈렛, 멕시코 살사를 곁들인 브런치 메뉴는 테이블온더문에서 꼭 맛봐야 할 메뉴다.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490-1 3층 문의 051-746-0023**

**도시 문화와 골목 문화가 어우러지다**  
 부산은 산과 바다를 품고 있다. 이듬해 '가마솥처럼 생긴 산에 둘러싸여 있다' 하여 '부산(釜山)'이다. 최초의 개항지였고, 일제강점기에는 해상 관문, 한국전쟁 당시엔 피란지였다. 산업화 이후에는 수출입 항구도시로 발전했다. 그 세월 동안 '부산 사람, 부산 음식, 부산 가요' 등으로 불리는 부산 특유의 정서와 이야기가 켜켜이 쌓였다. 부산 중구에 위치한 '보수동 책방골목' 또한 같은 자리에서 50년의 역사를 지나왔다. 한국전쟁 이후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었을 때 피란 온 손정린 씨 부부가 보수동 사거리 입구에 노점을 차리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헌 잡지와 만화를 팔던 것이 그 시작이다. 구석구석 잘 찾아보면 희귀한 LP판, 폐간된 잡지와 절판된 소설 등을 구할 수 있어 보물창가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다.

반면 해운대에서 바라본 뽀뽀한 초고층 건물은 부산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넓고 긴 해운대 백사장 인접에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쇼핑, 교육, 문화 등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타운이 형성된 것. 이 중 신세계백화점 센텀 오픈을 기점으로 세운 곳이 '센텀시티'. 이후

바다 능선을 따라 들어선 것이 '마린시티'다. 잠시 휴전과 함께 화려한 도시 사이를 유람하기로 했다. 마천루 사이를 지나는 세련된 디자인의 휴전이 더욱 돋보인다.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사이에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자리하고 있다. 푸른 바다 위에 미끈한 크림색 요트들이 늘어서 있어 장관을 이룬다. 국제적인 요트 경기가 연중 펼쳐지며, 영화 <태풍>과 <무방비도시> 등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요트 대여 업체를 방문하면 직접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바다와 도시, 골목 사이를 누비다 보니 어느덧 계획한 여정이 마무리됐다. 부산과 나만 아는 비밀이라도 하나 생긴 듯, 이번 여행은 '부산스러운' 에너지로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또 다른 삶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미련 없이 휴전에 몸을 실었다.

**\*보수동 책방골목 위치 부산시 중구 보수동1가 119 문의 051-743-7650**  
**\*수영만 요트경기장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393 문의 051-741-6440**

**Gourmet Guide 엘 올리브**  
 자중해식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표방하는 '엘 올리브'는 부산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로컬 푸드로 요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갈미조개 붕골레, 가장 안초비 파스타 등 지역성을 살린 독특한 메뉴가 많다. 레스토랑 안에 활어조가 있어 농어, 광어, 전복, 바닷가재 등을 살아 있는 상태로 조리하며 제철에 나는 가장 좋은 재료를 이용해 시즌마다 메뉴를 리뉴얼하는 노력도 엘 올리브만의 요리 철학을 보여주는 예다. 12월에는 굴과 매생이를 이용한 요리를 내놓을 예정이라는 것이 김민수 셰프의 귀뜸. 최고급 한우를 사용한 스테이크는 계절에 상관없이 맛볼 수 있다.

**위치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207-8 문의 051-752-7300**

포드자동차와 함께한  
5박 7일 미국 서부 여행

# Go Ford, Go California!



지난 9월 말 20명으로 구성된 여행단이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들은 포드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시승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Go Ford, Go California!'에 선발된 행운의 주인공.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선발 경기를 직접 보는 것은 물론 금문교, 페블 비치, 요세미티, 할리우드, 솔뱅, 산타바바라 등 미국 서부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는 달콤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여행의 백미는 마지막 날 산타모니카 해안 도로를 포드자동차를 직접 타고 온몸으로 느낀 드라이브 체험. 포드자동차 여행단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안겨주었다.

Writer & Photographer: 김남용(사진작가, 'Go Ford, Go California' 여행단 선발 고객)



## ONE DAY

### 세계 3대 미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20명의 여행단이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다들 처음 만난 데다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폭넓었기 때문. 여행 일정을 함께하기에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행의 자유와 낭만 덕분일까.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하고, 여기저기서 자연스럽게 형, 동생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첫날 일정은 '피셔맨스 워프'를 돌아보고 유람선에 탑승해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금문교'와 여러 영화의 배경이 된 '알카트라즈 섬'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는 길에 만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과 '차이나타운'의 모습도 낯선 이방인에게 설렘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푸른 바다와 평화롭게 떠 있는 요트는 왜 이곳이 세계 3대 미항으로 불리는지 말해주었고, 형형색색으로 아기자기함을 선사하는 주택가는 '언덕의 도시'라는 수식어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리 오랜 시간을 머문 건 아니지만 '팰리스 오브 파인 아츠와유니언 스퀘어'에서 느낀 이국적인 분위기도 무척 인상 깊었다.



## TWO DAY

### 짜릿한 17마일 드라이브와 절경 속 트레킹

산타크루즈에서 몬트레이를 향해 달렸다. 1시간 정도 이동해 도착한 '몬트레이'에는 17마일 드라이브와 페블 비치가 기다리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17마일 드라이브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는 상쾌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코발트빛 바다 위 버드 록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듯한 100여 마리의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브랜트 가마우지, 갈색 펠리칸의 동거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또 US 오픈을 비롯해 세계적 골프 대회가 열리는 페블 비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프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명불허전이었다.

이날 점심식사는 '머세드'로 이동해 미국 서부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인 앤 아웃 버거'를 맛보았다. 저렴하면서도 마치 고급 수제 버거를 먹는 것 같은 풍미가 소문대로 일품이었다. 식사 후에는 198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돼 그 웅장함에 마음이 절로 숙연해지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찾았다. '엘캐피탄', '하프돔', '요세미티 폭포' 등 빙하가 만들어낸 기암절벽을 비롯한 압도적 절경에 눈을 떼기 힘들었다. 요세미티 하단부를 볼 수 있는 곳까지 30분 정도 트레킹한 시간은 여행단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순간임이 분명했다.



## THREE DAY

### 잊지 못할 그리피스 천문대의 밤

덴마크 민속마을 '솔뱅', 미국 10대 부자 동네 '산타바바라', 로스앤젤레스 밤하늘과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리피스 천문대' 등 미국 서부 여행 사흘째 일정은 볼거리가 풍성한 하루였다. 먼저 미국에서 만난 작은 덴마크, 솔뱅에는 풍차, 기념품 숍, 서점, 레스토랑 등이 가득했는데 그 분위기가 마치 안데르센의 동화 속 마을이 떠오를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솔뱅을 둘러보고 40분 정도 이동해 도착한 곳은 바닷가에 위치한 운치 있는 분위기의 산타바바라. 미국의 10대 부촌에 손꼽히는 부자 동네라 그런지 모든 게 여유로워 보였고, 고급 휴양지로 손색없었다. 이날 마지막 일정은 마치 별이 뿌려진 듯한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리피스 천문대. 지금 돌아봐도 태양이 지며 만들어내는 붉은 흔적과 땅거미가 내려앉으며 만드는 짙은 하늘빛의 조화가 쉽게 잊히지 않는 황홀함을 안겨주었다.



## FOUR DAY

###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를 만나다

캘리포니아 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맑은 아침은 '할리우드'에서 시작되었다.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돌비 극장(옛 코닥 극장)'과 가장 빨리 영화를 개봉하는 극장으로 유명한 '맨스 차이니스 극장'을 둘러보며 말로만 듣던 할리우드 스타의 거리를 돌아다녔다. 영화 캐릭터로 분장해 관광객과 사진을 찍고 짬짬한 수익을 올리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도 즐거웠으며, 유명 할리우드 스타의 사인을 찾는 재미도 남달랐다. 할리우드를 돌아본 여행단은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옷으로 갈아입는 변신을 시도했는데,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유니폼이었다. 아쉽게도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이날은 LA 다저스의 정규 시즌 마지막 홈경기가 열리는 날이었고, 이 경기의 선발 투수가 바로 류현진 선수였다. 류현진 선수는 이날 15승과 방어율 2점대라는 두 개의 목표를 갖고 마운드에 올랐지만 결과는 살짝 아쉬웠다. 하지만 현지 팬들과 함께 "Go! Dodgers!"를 외치며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의 선발 경기를 관람했다는 사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 FIVE DAY

### 포드와 함께 태평양을 달린다

다음 날 아침에는 공항으로 이동해야 했기에 실질적으로 이날이 미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하루였다. 여행단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포드자동차 드라이브 체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행단은 여덟 대의 포드 자동차에 각각 타고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비치', '레몬도 비치', '롱 비치' 등 태평양 연안에 접해 있는 유명한 해변을 달리며 자유와 낭만을 만끽했다.

산타모니카의 태양을 온몸으로 느끼며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함께 머스탱은 스피드를 유감없이 발산했다. 익스플로러와 이스케이프 또한 감각적인 스타일과 넘치는 파워로 산타모니카 해안 도로를 마음껏 질주했다. 미국의 아름다운 비치를 끼고 있는 해안 도로와 쪽 뺨은 하이웨이를 직접 운전하며 만끽한 시간은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여전히 활력소로 작용하는 듯하다. 멋진 이벤트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안겨준 포드자동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Face the Winter

영동고속도로와 함께 동서를 가로지르는 6번 국도는 강과 산 그리고 바다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브의 황금 노선이다. 포드의 익스플로러와 함께 달린 6번 국도의 여정 그리고 익스플로러와 즐기는 글램핑까지.

Editor 이지성 Photographer 이윤희, 이승호

Cooperation 컨싱턴 플로라 호텔(033-330-5000)

비교적 기온이 높은 남쪽 지방 대신 매서운 추위로 상징되는 강원도 평창을 이번 드라이빙 코스 목적지로 정한 것은 단순히 이열치열의 정신 때문이다. 오는 겨울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면 즐기는 것이 어떨지. 국내에서 개마고원 빼고 가장 춥다는 평창은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 여행지임이 틀림없다.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이 여행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은, 눈길도 맹추위도 거뜰히 이겨내는 포드의 익스플로러와 함께하기 때문이었다.

평창에 가기 위해서는 으레 동서를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를 타게 된다. 하지만 이번 여정은 6번 국도를 따라가기로 했다. 6번 국도는 울미도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국도로, 평화로운 강과 빼어난 산세 그리고 동해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브의 황금 노선이다. 하루 만에도 주파할 수 있는 거리지만, 코스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려면 1박 2일로 떠나는 것이 좋다. 깊은 밤과 새벽에 만날 수 있는 강원도의 청량한 겨울은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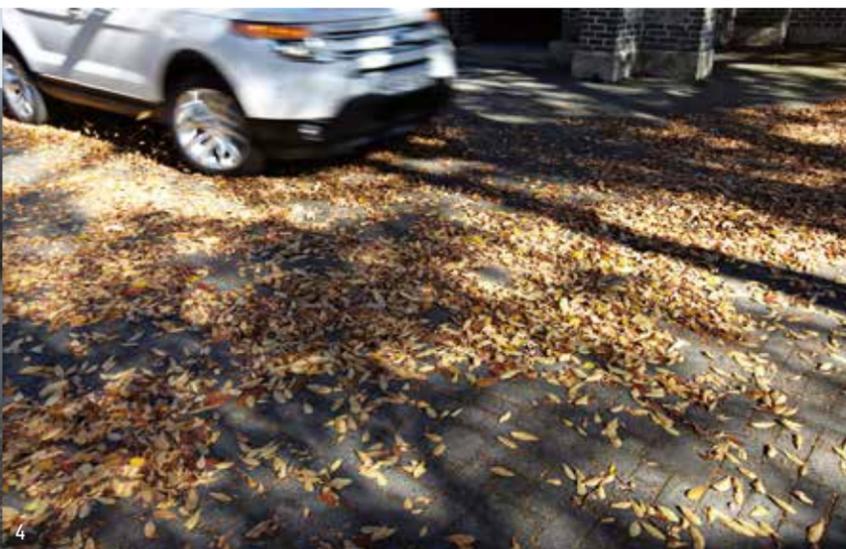
앞으로 펼쳐질 여정을 예고라도 하듯, 서울에서 출발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만난 창밖의 풍경은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팔당대교에서 동쪽을 바라본 풍경으로 왼쪽으로는 6번 국도길이, 오른쪽에는 검단산과 남한산이, 전면에는 한강과 팔당호가 끝없이 펼쳐졌다. 물과 산의 빛, 바람의 향기까지 도심의 그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팔당대교부터 25km 거리에 있는 양평까지 강의 풍경이 이어졌다. 6번 국도에 진입할 수 있는 양평부터는 몇몇 작은 시골 마을도 만날 수 있었다. 추수를 끝낸 논과 동네 개울가, 작은 슈퍼와 마을 회관까지 1980년대에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풍경은 어른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흥미로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게 할 것이다.



평창에 자리한 컨싱턴 플로라 호텔의 글램핑 존. 이국적인 풍경의 천막에서는 점심, 저녁 식사가 가능하다.



1 황성 5일장의 풍경 2 근대식 건축물인 풍수원 성당. 황성에 자리한다. 3 팔당 대교 북단에서 바라본 풍경 4 가을의 끝자락에 찾은 풍수원 성당의 앞뜰에는 낙엽이 가득했다. 5 익스플로러 안에서 바라본 전나무 숲 6 황성과 평창사이 한참이나 계속된 산길 코스 7 캔싱턴 플로라 호텔 안의 호수와 글램핑 존의 전경 8 오대산의 산새와 월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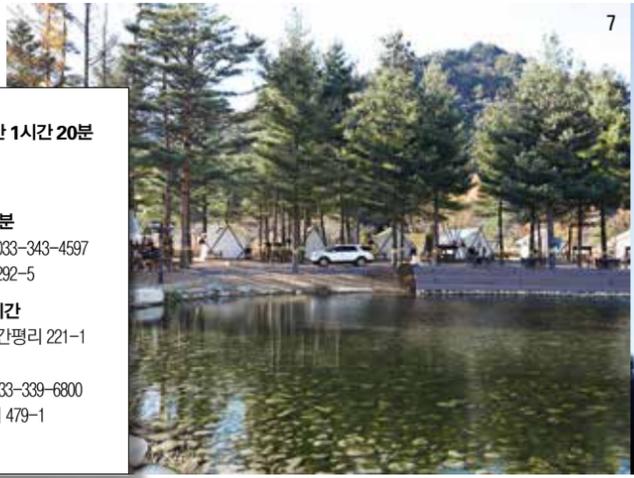
팔당대교부터 양평까지의 테마가 강이라면 황성까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1·6일에서는 황성 5일장이 그 가운데에 있다. 황성의 할머니들이 직접 캔 생나물과 말린 나물을 팔고 있었다. 물에 불려 밥 지을 때 넣으라며 조리법까지 알려주는 할머니에게 산 말린 곤드레는 황성 5일장을 추억할 수 있는 솔 푸드가 되었다. 산나물을 파는 할머니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시장의 주전부리다. 수십 년간 솔뚜껍에 부친 전을 파는 70대 노부부는 모양은 투박하지만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감자전을 부쳐주었다. 그 밖에도 발갈게 무친 무나물을 메밀전 속에 넣고 만 메밀전병, 참나물과 배추를 넣은 메밀전까지, 곳곳에서 고소한 향이 진동했다.

6번 국도의 정점은 황성과 평창 사이의 산 코스가 짝였다. 둔내와 봉평, 용평을 지나는 이 구간은 종종 알프스산맥과 로키산맥에 비견되는데, 직접 이곳을 다녀간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산과 산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코스를 오르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만나게 되는 절벽과 수 킬로미터 앞 산세는 한 폭의 산수화나 다름없다. 한겨울 밤의 평창을 즐기기 위해 선택한 것은 캠핑이다. 하지만 맹추위로 위용을 떨치는 평창에서는 캠핑의 즐거움은 그대로, 따뜻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캔싱턴 플로라 호텔이 최고의 선택이다. 호텔에서는 숙박은 객실에서, 점심 또는 저녁식사는 호텔 뒤쪽에 자리한 글램핑 존에서 캠핑하며 즐길 수 있는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호텔 뒤쪽에 자리한 글램핑 존에는 호텔이 자리하기 수백 년 전부터 자란 전나무 숲을 그대로 보존해 이국적인 분위기의 천막을 세웠다.

**Course Information**  
 팔당대교~양평 | 거리 50km | 소요 시간 1시간 20분  
 팔당대교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비룡교차로 경기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양평~황성 | 거리 30km | 소요 시간 55분**  
 풍수원 성당 강원 황성군 서원면 유현리 033-343-4597  
 황성 오일장 강원 황성군 황성읍 읍상리 292-5

**황성~평창 | 거리 75km | 소요 시간 1시간**  
 캔싱턴 플로라 호텔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221-1  
 033-330-5000  
 월정사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1 033-339-6800  
 효석문화마을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479-1  
 033-330-2771



글램핑 존에서 즐기는 푸짐한 저녁식사와 온몸을 마사지하는 호텔의 탄산 온천 그리고 따뜻한 객실에서의 하룻밤은 여독을 말끔히 풀어주었다.

캔싱턴 플로라 호텔에서 3km 거리에 자리한 오대산 월정사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좋은 곳이다. 자동차를 타고 월정사와 상원사까지 돌아볼 수 있어 겨울 산을 걷기에 무리가 있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도 만족할 만하다. 평화로운 오대산에 자리한 고즈넉한 절과 국보인 팔각구층석탑, 보물 석조보살좌상 등의 문화재는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꼭 봐야 할 평창의 보물 중 하나다. 여행의 피날레는 봉평이 장식했다. 떠돌이 허생원의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근대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봉평에는 작가 이효석의 생가와 기념관, 광활한 메밀밭으로 꾸민 효석문화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매년 9월이면 소금을 뿌린 듯 하얗게 메밀꽃이 피는 이곳에서는 가을의 봉평과는 또 다른 겨울 봉평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을 감싸 안은 오대산과 짙은 갈색의 메밀밭 그리고 웅기종기 모여 있는 집까지. 겨울 봉평의 모습은 이효석의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작품이 탄생한 이유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myFord>가 찾은 11월 중순의 강원도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스키 슬로프에는 눈을 뿌리기 시작했으며, 길에는 온통 제설 준비로 한창이었다. 이르면 11월 말부터 6번 국도에서 새하얀 눈이 덮인 풍경을 마주하며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추위에 어깨를 움츠리는 대신 겨울에 맞서고 즐기는 것. 맹추위가 예보된 올겨울을 현명하게 보내는 법이다. 올겨울엔 진정한 추위를 만끽할 수 있는 강원도 여행을 하며 6번 국도를 신나게 달려보는 건 어떨까.



## 현재에 충실한 딜러십 프리미어모터스 임영기 대표이사

지난해 합류한 프리미어모터스, 올해 합류한 헤인자동차, 더파크모터스, 이한모터스까지 포드는 이제 선인자동차와 함께 다섯 개의 딜러사를 통해 국내에 선보이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프리미어모터스는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일곱 개의 전시장과 일곱 개의 서비스센터를 출범할 만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사다. 수장인 임영기 대표를 만나 그들의 강렬한 행보에 대해 알아보았다.

Editor 이지성 Photographer 이승호

**Q '포드'라는 브랜드의 첫인상이 궁금하다.**

**A** 어릴 적 나의 머리 속에 자동차를 처음 생산하고 또한 대량 생산 시스템을 통해 일반화 시킨 회사는 포드뿐이었다. 물론 링컨 컨티넨탈 같은 럭셔리 세단도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역시 포드는 일반인도 자동차를 접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 그 자체였다. 이 때문에 포드는 곧 실용적인 차를 만드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자리한지도 모르겠다.

**Q 과거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관련 업계에서 지점장의 위치에 오를 만큼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A** 맞다. 오랫동안 증권사에서 근무하다 돌연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이 2000년이다. 업무 특유의 스트레스도 이유였지만, 좀 더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런 이유에서 금융&라이프스타일 분야의 다채로운 사업을 펼치는 씨앤에이치(주)는 완벽한 선택이었으며,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알게 되고, 삶의 철학이나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Q 프리미어모터스의 출범을 맡았다.**

**프리미어모터스가 수많은 수입차 브랜드 중 포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자동차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은 주로 미국에서 이뤄지는데, 이를 실제로 상업화 해 자동차에 도입, 세계시장에 판매까지 이뤄지는 곳은 유럽 국가와 일본인 경우가 많다. 포드를 비롯한 미국 자동차는 대부분 자국에서 수요가 이루어지는 편이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내구성, 안전성 등의 실용적 측면을 강조한 탓인데, 이것이 자동차를 '신발'처럼 생각하는 미국인의 삶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2003년 BMW와 재규어&랜드로버의 딜러사로서 경험이 있고, 휴렌트를 통해 자동차 리스, 렌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씨앤에이치는 포드의 딜러사로 합류하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다년간 주시해왔다. 실용적 측면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최근 연비, 편의

사항, 디자인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포드의 저력을 보았고, 국내에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Q 포드는 지난해 프리미어모터스가, 올해 헤인자동차가 합류해 선인자동차와 함께 복수의 딜러사가 되었다. 이로써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가.**

**A**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국내 포드를 만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A/S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복수 딜러십의 가장 큰 장점 아닐까. 리스 사업 등을 펼치는 지주사 씨앤에이치(주)를 바탕으로 하는 프리미어모터스는 신차 구매 고객이 추후 포드의 차를 중고로 팔 경우 가격의 50%를 보장해주는 리스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는데, 이도 복수의 딜러사 출범으로 생겨난 고객 서비스 중 하나다. 자연스럽게 생긴 딜러사 간의 경쟁은 세심한 고객 서비스는 물론 합리적인 가격을 가능케 한다. 올해 42% 성장세를 보인 것도 지난해와 올해 새롭게 출범한 두 딜러사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Q 일부 포드 마니아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채로운 프로모션 활동을 벌이고 있는 프리미어모터스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A** 새로 출범한 딜러인 터라 많은 사람에게 포드와 함께 프리미어모터스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시장을 찾는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마케팅 방법을 취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올해에는 스포츠 동호회를 지원하고, 아이들의 음악회를 위해 전시장을 내어주는 등 흥미로운 이벤트를 열었으며, 2014년에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도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Q 올해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만큼 앞으로 펼쳐질 고객 관리·애프터서비스도 중요할 것 같다.**

**A** 프리미어모터스는 판공과 도장까지 가능한 풀-워크 서비스센터가 평촌과 부산에, 서초, 송파

그리고 울산, 창원 제주까지 여섯 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영등포와 부천에 새로운 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출범한 지 1년 6개월 동안 이뤄낸 성과 중 가장 큰 부분이다. 일곱 개의 전시장 수와 맞먹는 서비스센터는 판매뿐 아니라 고객 관리, 애프터서비스에도 세심히 신경 쓰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Q 프리미어모터스의 대표로서, 가장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에 되새기는 좌우명이 있다면.**

**A** 결국은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거울이 현재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현재 고객 서비스에 충실하지 못하면 미래의 고객도 담보할 수 없다.

**Q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포드의 모델은 무엇인지,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어떤 차를 추천하는지 궁금하다.**

**A** 직업의 특성상 지금껏 다양한 수입차를 경험해왔다. 그중에서도 포드의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고속 주행, 첨단 편의 시설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고, 나 역시 탈 때마다 새삼 느끼게 된다. 이른바 포드에는 개혁과도 같은 탁월한 연비의 뉴 토러스, 뉴 퓨전은 포드의 전통적인 가치에 디자인과 효율성을 갖춘 모델이라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 중 남성에게는 토러스를 여성에게는 뉴퓨전을 항상 추천한다. 출퇴근 용도로도, 주말 나들이에도, 온 가족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스마트한 차다. 성격이 상반된 아들 둘이 있다. 조용하고 세심한 성격의 첫째에게는 뉴 퓨전을,

요리를 하는 창의적인 성격의 둘째 아들에게는 머스탱을 선물하고 싶다.

**Q 2014년 프리미어모터스의 목표는 무엇인지.**

**A** 새해에는 다채로운 디젤차도 출시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실용성과 디자인, 안전성까지 두루 갖춘 포드의 새 라인업을 기대해도 좋다. 새로운 라인업과 함께 프리미어모터스는 2014년을 자동차 2000대 판매, 체계적인 고객 관리의 해로 목표를 정했다. 마케팅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객 관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세심히 이뤄질 것이다.

**Q 20년 후의 목표와 꿈이 궁금하다.**

**A** 포드가 국내에서 크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어 있기를. 그중 프리미어모터스가 포드의 주요 딜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변함없이 날로 성장하는 포드의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Q <myFord>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 올 한 해 프리미어모터스의 폭발적 성장을 가능케 해준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포드와 미국 자동차에 선인권을 가진 고객이라면 꼭 한 번 포드를 경험해볼 것을 권한다. 포드는 지금까지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성장한 포드를 경험한다면 미국 자동차에 대한 생각까지 단숨에 바뀔 것을 확신한다. 2014년에도 포드와 함께 새로운 드라이브의 묘미를 맛보기 바란다.





포드 토러스와 함께한 배우 엄효섭

# The Road Not Taken

올해에만 여섯 번째 드라마를 찍고 있다. 각기 다른 캐릭터, 각기 다른 얼굴을 브라운관에 드러내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를 재촉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하는 엄효섭 자신이다.

강렬한 레드 컬러 포드 토러스와 기막히게 어울리는, 배우 엄효섭과의 솔직한 인터뷰.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이유미 Cooperation Hugo Boss(02-515-4088), Beera(02-1566-7923)



배우 엄효섭과의 약속이 성사됐다. 어렵게 잡은 일정이건만 당일 아침부터 진눈깨비가 흩날렸다. 진눈깨비는 곧 함박눈으로 바뀌고 하늘도 잔뜩 어두워졌다. 초조한 마음으로 인터뷰 시간을 기다리는데, 거짓말처럼 날이 갠다. 그러고는 그가 등장했다. 청바지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이번 촬영의 콘셉트를 설명하는 에디터에게 “네,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라며 농담을 건넨다. 그러던 그가 카메라 앞에 서자마자 표정이 달라졌다. ‘배우는 배우다’를 여실히 느낀 순간이다. 올해만 해도 그가 출연한 드라마가 다섯 편인데, 매년 다른 캐릭터로 자신의 페르소나를 지우고 다시 써온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2013 학교>의 원칙주의로 무장한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 <나인: 아홉 번의 시간여행>의 속 깊은 보도국장, <구가의 서>의 덕망 높은 상인, <황금의 제국>의 재벌 회장의 철없는 장남, <트릭스>의 외유내강 부장검사까지. 이전에 출연한 <히트>의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 <선덕여왕>의 비열한 척사였던 염중, <골든타임>의 무능하고 비굴한 외과의사 과장과 영화 <도가니>의 비리를 감추는 형사 등을 거슬러 봐도, 그의 필모그래피에 담긴 캐릭터는 엄청난 스펙트럼을 묵묵히 보여주는 듯하다. 의연한 화색이던 하늘이 맑게 개듯, 무명 시절이 꽤 길었던 그에게 메이저 진출은 운명처럼 다가왔다. 연극 무대에서 열정을 불사르던 그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2005년 극단 골목길의 <선착장에서>를 마지막으로 연기를 접으려 했다. 그러다 이 작품을 본 감독이 영화 <로망스>에 그를 직접 캐스팅했고, 이후 <히트>, <선덕여왕>, <공주의 남자> 등 꽤 성공한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다. “당시 영화 계약금이 저한테 엄청 큰돈이었죠. 아, 나를 불러주는 데가 있구나, 연기를 계속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때 마음먹은 대로 연기를 그만뒀다면?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아마 다음 생애에 태어나도 배우를 할 겁니다. 배우라는 직업, 참 매력적이잖아요.”



그는 얼마 전 드라마 페스티벌 '2013 에이판 스타 어워즈(Apan Star Awards)'에서 소이현, 정은지와 함께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받았다. "드라마를 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드라마로 처음 탄 상이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요"라고 말하는 그. 하지만 그의 연기 인생이 절정에 달했다고는 볼 수 없다. "10년 넘게 산에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요. 산을 빨리 오르라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오르막길을 무작정 뚫 수는 없거든요.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가야죠. 배우로서 저는 아직 오르막길에 있는 것 같아요. 숨을 천천히 고르며 가되, 대신 땀은 짝 빼면서 열심히. 아직도 보여줄 것이 많거든요."

그가 인터뷰 내내 가장 많이 내뱉은 단어는 '연습'과 '집중'이다. 모든 배우에게 연기에 대한 슬럼프는 숙명일 텐데, 엄효섭은 그래서 무조건 연습한다. 될 때까지 연습한 후 현장에 간다. 연습이 되면 현장 분위기와 상대방의 호흡에 따라 또 새로운 연기가 나온다. 또 캐릭터에 집중할 것. 아무리 악한 인물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끝까지 이해한 뒤에 연기를 한다. 그렇지 않은 연기는 거짓말이라고 믿는다. 캐릭터에 대한 열쇠는 대본 안에 있다. 대본에 적힌 말줄임표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이유다.

"에드리브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없는 이상 대본에 충실하려고 해요. 캐릭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까요. 악역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수많은 감정과 정서에는 그런 모습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이 역할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과 집중이 있으면 현장에서 진짜 즐길 수 있는 법이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곧 극중 인물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는 그는 DVD 속에 들러 영화를 몰아서 보거나 인문서, 소설책을 즐겨 읽는다. 편안함을 좋아해 드라마 <황금의 제국>을 찍기 전에는 정장 한 벌 사본 적이 없고, 자전거를 타고 왕복 40km에 이르는 길을 혼자 달리곤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다.



"드라마 <나인>에서 포드를 직접 몰아봤죠. 안정적이면서 묵직한 주행감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느낌? 마이포드 시스템이 조금 낯설었지만 금세 익숙해졌고요. 가족들과 강릉에서 포항까지 7번 국도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 게 기억나네요. 포항에 갈 일이 있었는데, 해안 도로로 가려고 일부러 중부나 경부고속도로를 타지 않았거든요. 오늘 파트너인 레드 컬러 토러스를 타고 달려보는 것도 멋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SBS 드라마 <상속자들> 후속작이자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별에서 온 그대>를 촬영하기 시작해 실 틈이 없다. 단지 '잘하는 배우, 관참은 배우' 정도로 기억되었으면 한다는 그는 큰 포부를 말하진 않았다. 다만 연기에 대한 욕심만큼은 절실히 내비쳤다. "영화, 연극, 드라마 다 하고 싶어요. 올해는 못했지만, 다시 무대에도 오르고 싶어서 이야기 중이고요. 배역보다는 연기 자체에 욕심을 내고 싶어요." 23년차 배우지만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연기를 통해 발견하고 싶다는 그는 굳이 배역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자신의 연기 인생에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많이 남았다고. 진눈깨비가 펄펄 날리다가, 함박눈이 되었다가, 거짓말처럼 맑아졌다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날씨처럼. 배우 엄효섭이 또 어떤 얼굴로 당신에게 말을 걸지 모를 일이다.





# Heart Gifts

감동을 주는 첫인상과 사용할수록 가치를 더하는 선물은 포드의 시그너처인 머스탱과 닮아 있다. 선물의 의미를 오랫동안 떠올리게 할 선물 아이템을 엄선했다.

Editor 이지성 Photographer 전세훈



## Symbol of Men

매력적인 시니어 남성의 대명사 알 파치노와 알랭 들롱.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클래식한 페도라가 함께한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코트, 슈트와 페도라를 매치하면 중후한 남성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 가볍고 편안하며 보온성이 뛰어나 겨울철 중년, 시니어 남성을 위한 선물 아이템으로 추천한다.

이탈리아의 모자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펠트 소재의 페도라. 볼사리노 by 쏘숏



대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은 어깨, 보디라인을 살리는 허리선은 단연 비스포크 슈트에서만 볼 수 있는 디테일이다. 비즈니스맨에게 슈트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군더더기 없는 테일러링의 비스포크 슈트를 선물해 자신감 있는 남성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줄 것.

## Gentlemen's Wear

- 1 개운한 촉감의 화이트 셔츠, 권오수클래식
- 2 네이비 컬러의 스트라이프 소재로 완성한 더블브레스트 슈트, 권오수클래식
- 3 사각의 음각 디테일을 슈즈 전체에 디자인한 레이스업 슈즈, 휴고 보스

### Women's It Bags

앨리게이터를 소재로 한 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워너비 아이템이다. 앨리게이터 특유의 패턴과 컬러는 백 하나로 럭셔리한 스타일링을 가능케 한다. 나이가 젊은 여성을 위한 아이템이라면 강렬한 컬러의 앨리게이터 백이 자칫 고루해 보일 수 있으니 컬러 선택에 주의할 것.

- 1 장인 한 명이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정교한 디테일의 앨리게이터 백, **헨리베글린**
- 2 가죽을 엮어 마감한 플랫 슈즈, **헨리베글린**



1

2

### Touch of Accessory

다소 어둡고 무거워 보이는 겨울 시즌의 스타일링은 액세서리가 완성한다. 퍼, 울 머플러를 고정하는 용도로, 오버사이즈 니트 또는 겨울 코트에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브로치는 어떤 액세서리보다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다. 심플한 셔츠나 니트에 자연스러운 멋의 네크리스를 매치하면 단숨에 감각적인 룩을 연출할 수 있다.

- 1 크리스털이 촘촘히 박힌 불가사리 모양 브로치, **스와로브스키**
- 2 크림, 베이지, 브라운 톤의 원석을 장식한 브로치, **르베이지**
- 3 일자 형태로 되어 있어 어깨에 걸치거나 목에 한 번 감아 사용할 수 있는 네크리스, **르베이지**
- 4 바게트 컷의 크리스털이 촘촘히 박힌 볼드한 링, **스와로브스키**



1

2

4

3

Love Messenger

잘 고른 선물은 사랑을 깊어지게 하는 사랑의 묘약과도 같다. 처음 만난 해, 결혼한 해 또는 아이의 생년 등 의미 있는 연도의 위스키, 와인을 선물해 서로의 사랑을 굳건히 하는 건 어떨까. 진, 럼, 보드카 등의 술로 칵테일을 만들어 둘만의 파티로 한 해를 마무리해도 좋을 듯. 이때 감동의 정점을 찍는 선물은 필수로, 매력적인 여성을 위한 선물로는 어떤 의상이나 잘 어울리는 클러치, 관능미 넘치는 슈즈가 적당하다.

- 1 글렌피딕에서 최초로 출시한 싱글 몰트위스키, 글렌피딕 19년 에이지 오브 디스커버리 마데이라 캐스크, 글렌피딕
- 2 스코틀랜드 거반에서 전통 방식으로 소량만 생산하는 프리미엄 진, 헨드릭스 진
- 3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의 마티니 잔, 존루이스
- 4 촛불의 컬러와 은은한 빛을 그대로 재현한 이매지오 라이트, 세 개의 라이트에는 충전부가 포함되어 있다, 필립스
- 5 엘리게이터 패턴으로 완성한 버건디 컬러 클러치, 헨리베글린
- 5 관능적인 매력의 부티 힐, 나무하나



- Cooperation
- GLENFIDDICH(02-2152-1600)
  - HENDRICK'S GIN(02-2152-1600)
  - HENRY BEGUELIN(070-7772-4375)
  - HUGO BOSS (02-515-4088)
  - JOHN LEWIS(02-310-5379)
  - KWONHOSOOCLASSIC(02-514-1222)
  - LEBEIGE(02-3442-3012)
  - NAMUHANA(02-461-9720)
  - SO'SAL T(02-3479-1844)
  - SWAROVSKI(02-3444-2144)
  - PHILIPS(080-600-6000)

# Winter Body Guard

겨울철 메마른 몸을 매끄러운 건강함으로 무장시킬 보디 제품과 케어 팁.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전세훈



**1** 한방 스파 성분을 농축한 프리미엄 보디 라인 제품. 피부에 닿는 순간 부드럽고 깊게 흡수된다. 후 스파 모이스처라이저, **THE HISTORY OF WHOO** **2** 시어버터와 린시드, 마시멜로, 스위트 아몬드와 살구씨 오일 등이 피부를 부드럽게 가꿔주는 제품. 시어버터 리치 바디 크림, **L'Occitane** **3** 식물성 오거닉 오일로 만든 고농축 밤 향이 없어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면 좋다. 오거닉 매직 밤 베이비 마일드, 오렌지 오일과 레몬 오일이 피부 진정과 정화 효과를, 라임 오일이 노폐물 제거와 각질을 정돈해주는 멀티 밤, 오거닉 매직 밤 시트러스 오렌지. 모두 **DR.BRONNER'S** **4** 세라마이드 유도체와 비타민 E 유도체 작용으로 각질을 매끄럽게 정돈해준다. 팔꿈치와 발뒤꿈치에 사용하는 부분용 보디 크림, 드라이 스킨 크림. **ORBIS** **5** 프랑스 남부 '드롬' 지역의 피어니 꽃이 풍부한 향을 전하는 보디 밀크, 피브란 플로러 뷰티 밀크, **L'Occitane** **6** 카카오 버터, 시어버터, 바나나, 아보카도, 오트밀 등이 뛰어난 보습력을 선사한다. 샤워 마지막 단계에서 가볍게 발라 마사지한 후 씻어낸다. 킹 오브 스킨, **LUSH**

## Care tip 1 보디 제품 꼼꼼히 바르는 습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피부가 움츠러들면서 메마르기 시작한다. 게다가 하루 종일 틀어놓는 실내 난방기는 오랜 시간 건조한 환경에 피부를 방치하기 마련. 피부 수분이 부족해지면 가려움증은 물론,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 이때 탄력과 보습을 겸비한 제품을 얼굴뿐 아니라 보디 전체에 꼼꼼하게 바르는 습관이 필요하다.

먼저 가벼운 텍스처의 보디 밀크나 로션 종류의 제품을 선택해 샤워 후 물기가 마르기 전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을 감싸는 보습막이 생기는 셈. 온몸을 마사지하듯 아래에서 위로 쓸어 바른다.

## Care tip 2 크림과 오일로 탄탄한 장벽 쌓기

평소 제품을 꼼꼼히 바른다 해도 요즘 같은 계절에는 금세 가렵고 건조해진다. 로션과 함께 적당히 유풀기가 있는 보디 크림을 사용한다. 무거운 질감의 보디 크림을 건조한 부위에 두세 번 덧바르는 것이 방법. 흡수가 잘되도록 여러 번 두들긴다. 보디 크림 대신 보디 밤이나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손바닥의 열기로 살살 녹인 뒤 건조한 부위에 흡수시킨다. 로션과 오일 제품을 섞어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것도 팁. 민감한 피부라면 자극 성분을 배제한 저자극성 보습제를 선택하자.

## Care tip 3 자주 물 마시고, 채소 챙겨 먹기

수시로 물을 마셔 피부 자체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려면 8~10컵의 물을 마시는 것은 기본.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신진대사도 원활해져 세포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다. 차나 과일, 채소도 자주 먹을 것. 특히 제철 채소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예방한다.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는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부추 등이 좋다.

## Care tip 4 목욕은 짧게, 옷과 침구는 편안한 소재로

목욕을 너무 자주 하거나 오래 하는 것도 몸의 수분을 빼앗는 행동.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고 거친 타월로 피부를 문지르지 않는다. 이 밖에 건조한 피부를 위한 생활습관을 몇 가지 소개하면, 울 소재 옷은 피하고 면 소재 옷을 받쳐입을 것. 겨울에 자주 입는 울 소재 옷은 피부에 쉽게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침구 역시 마찬가지. 또 잠이 부족하면 몸속 수분을 고갈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숙면은 촉촉한 보디 케어의 첫걸음이다.

### Cooperation

DR.BRONNER'S(02-3414-1109), L'OCCITANE(02-3014-2950), LUSH(1644-2357), ORBIS(080-301-5050), PRIMERA(080-023-5454), THE HISTORY OF WHOO(080-727-5252), THE ORGANIC PHARMACY(02-2058-2002)



**1** 망고 버터가 보습을 강화하고, 빌베리추 추출물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방어한다. 망고 버터 컴포팅 바디 로션, **PRIMERA** **2,3** 심신에 안정을 주는 패출리 오일은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다. 여기에 부종에 좋은 라임 오일을 블렌딩했다. 매직 오거닉 패출리 라임 로션. 피부 신진대사를 높이고 탄력을 주는 켈라파 파우더와 숙면 효과가 있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들어 있는 보디 로션. 매직 오거닉 라벤더 코코넛 로션. 모두 **DR.BRONNER'S** **4** 로마 캐머마일 꽃 추출물을 배합해 건조로 인한 가려움을 즉각적으로 가라앉히는 제품. 드라이 스킨 젤 로션. **ORBIS** **5** 시어버터, 호호바 오일, 알로에를 함유한 고영양 보디로션. 피부의 재생과 탄력을 돕는다. 재스민 보디로션. **THE ORGANIC PHARMACY** **6** 극건성 피부가 사용하기 좋은 부드러운 텍스처의 보디 크림. 스위트 아몬드, 카카오 버터, 바닐라 등이 함유됐다. 삼파시 포 더 스킨, **LUSH**

신사를 위한 축배

# Good Luck, Whisky

온더룩으로 마셔도 좋고, 진하게 샷으로 즐겨도 좋은 신사의 술, 위스키. 남자라면 즐길 줄 알아야 하는 리스트 목록 1순위로 꼽힐 만큼 전통과 깊이가 살아 있는 위스키의 세계로 초대한다. 연말, 지인들과 즐기는 파티에 내놔도 손색없는 품격 높은 위스키 리스트.

Editor 이희진

Photographer 이승호

Cooperation 디자인오 코리아(080-3466-700),

페르노리카 코리아(02-3466-5700)



**1 Royal Salute 21 Years Old 로알 샬루트 21년**  
로알 샬루트는 1953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에 헌정하면서 탄생했다. '왕의 예포'를 뜻하는 '로알 샬루트'라는 이름과 '21년'이라는 숙성 연수는 영국 해군이 국왕 주관의 공식 행사에서 왕실과 군주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발표한 21발의 예포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 로알 샬루트 21년은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의 세 가지 색상으로 만드는데, 이는 영국 군주의 왕관을 장식하는 보석을 의미한다. 과일 향과 가을꽃의 달콤한 향취가 느껴진다. 특히 은은한 스모키 향이 배어 있는 풍미와 여운을 남기는 꿀맛이 매력적이다.

**2 Talisker 10 Years Old 탈리스커 10년**  
'탈리스커'는 디자인오의 클래식 몰트 컬렉션 중 하나로 '경사진 암벽' 또는 '돌의 땅'을 뜻한다. 1831년에 설립한 증류소에서 생산하는 탈리스커는 전통 방식의 나선형 쿨링 코일인 원 튜브를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현대적인 응축기 방식보다 좀 더 풍부한 풍미의 위스키를 생산하게 한다. 현재 탈리스커를 대표하는 위스키는 10년으로, 탈리스커 증류소 매니저 마크는 탈리스커 10년을 마셔보지 않고는 다른 탈리스커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 맥아 향이 느껴지며, 개운하고 따뜻하며 강렬한 후추 향이 상쾌하다.

**3 Chivas Regal 12 Years Old 시바스 리갈 12년산**  
시바스 리갈의 완벽한 블렌딩 기법에 관한 명성은 19세기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데, 시바스 리갈은 적어도 12년 이상 숙성시킨 몰트위스키와 그레이니위스키로 만든다. 시바스 리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당대 최고의 마스터 블렌더, 콜린 스콧이다. 그는 30년 동안 시바스 리갈과 함께했으며, 일관성 있는 최상의 품질과 감미롭고 부드러운 맛은 그에 의해 지속되었다. 벌꿀, 잘 익은 사과, 헤이즐넛, 스카치 버터 향이 섞여 우아하고 부드러운 맛을 낸다. 섬세하고 은은한 뒷맛의 여운이 오래 지속된다.

**4 The Singleton of Glen Ord 15 Years Old 싱글톤 15년**  
'싱글톤'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증류소 중 하나인 '글렌 오드'에서 1838년부터 제조하기 시작했다. 세리 오크와 버번 오크로 미묘하게 숙성시켜 하나만의 오크에서 숙성한 다른 싱글 몰트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입증하듯 싱글톤 15년은 세계주류품평회(WVSC) 싱글 몰트위스키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싱글톤은 선홍빛이 감도는 짙은 황금색에 꿀에 절인 달콤한 과일 맛과 약간의 신맛이 어우러져 풍부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5 Ballantine's Glentauchers Edition 17 Years Old 발렌타인 17년 글렌토커스 에디션**  
스코틀랜드의 글렌토커스 증류소에서 생산하는 발렌타인은 1898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전통적 증류 방식을 지키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스카치위스키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에디션'은 베리를 떠올리게 하는 버건디 컬러의 독특한 색채 조합으로 기존 리미티드 에디션의 스타일을 이어가면서 다른 블렌드와 차별화된 개성을 보여준다. 은은한 시트러스 풍미에 부드러운 라즈베리와 견과류 향, 달콤한 꽃 향이 조화를 이룬다.

**6 The Glenlivet Nadurra 17 Years Old 더 글렌리벳 나두라 17년**  
'나두라(Nadurra)'는 19세기 전통 기법을 그대로 재현해 몰트의 풍부한 맛과 향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몰트위스키 대부분이 물을 넣으면 흐릿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식 냉각여과 공법을 사용하는 반면 더 글렌리벳 나두라는 냉각여과 공법을 과감히 생략하고 전통 기법을 통해 싱글 몰트만의 달콤한 풍미를 표현한다. 벌꿀과 과일 맛이 일품으로 달달한 꽃 향과 바닐라 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드라이하면서 깔끔한 생각과 헤이즐넛 맛으로 마무리된다.

# Classic Makes me New

몇 세대를 지나오면서도 닳지 않고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내는 음악을 우리는 클래식이라 부른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음악가들이 재해석하고 재창조한 클래식 음반을 추천한다.

Editor 김미라 Photographer 김명성 Cooperation Universal Music(02-2106-2000)



### 1 <Silent Night>

2007년 영국 클래식 브릿 어워드의 '올해의 작곡가' 부문 노미네이트,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OST 작곡 등 클래식과 영화음악을 넘나드는 나이젤 헤스의 국내 신보. 시대를 뛰어넘은 크리스마스 선율을 영국의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깊고 편안한 감동을 선사한다. **Nigel Hess, 1CD 18곡.**

### 2 <Janine Jansen Bach Concertos>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바이올리니스트, 재니 안센이 담아낸 바흐는 어떨까. 참고로 런던의 클래식 FM은 '작곡가의 의중을 가장 완벽하게 파악한 앨범'이라고 평했다.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첼발로와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등이 수록됐다. **Janine Jansen, 1CD 16곡.**

### 3 <For Now I am Winter>

아이슬란드의 음악가 올라퍼 아르날즈가 지난 3월 발표한 정규 3집 앨범. 우아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네오 클래식 사운드를 선보이는 그는 이번엔 풍성하고 변화무쌍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더해 자유로움과 공허함, 멜랑콜리한 감성을 담아냈다. 올라퍼 아르날즈가 처음 선보이는 보컬 곡도 만날 수 있다. **Ólafur Arnalds, 1CD 14곡.**

### 4 <Homeward Bound>

166년의 전통을 이어온 미국의 모르몬 테버네클 합창단과 세계무대에서 가장 조명받고 있는 베이스-바리톤 성악가 브린 터펠. 두 거장이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바리톤 중에서도 낮고 무거운 터펠의 음색과 360여 명의 합창단, 15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져 클래식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이는 독특한 음반이다. **Bryn Terfel, Mormon Tabernacle Choir, 1CD 18곡.**

### 5 <Dvořák>

1976년 13세에 세계적 지휘자 카라얀에게 발탁되어 데뷔 후 지금까지 '바이올린 여제'로 군림하고 있는 안네 소피 무터. 1970년대부터 함께 공연해온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첫 스튜디오 앨범을 녹음했다. 민속적이며 생생한 색감을 지닌 드보르자크를 안네 소피 무터의 이름으로 들어보자. '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 '마주르카',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등을 수록했다. **Anne Sophie Mutter, 1CD 6곡.**

# With your Winter Holiday

올겨울, 당신의 따뜻한 추억과 함께할 포드의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꼽았다.

Editor 김미라



### 1 | Love Ford Ornament

차 안이나 집 안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해줄 오너먼트. 두 개의 제품이 박스에 담겨 선물용으로 그만이다. 19.95달러. [www.fordcollection.com](http://www.fordcollection.com)

### 2 Ladies Vintage Derby Cap

머스탱 50주년 기념 로고가 새겨진 그레이 컬러의 여성용 빈티지 캡. 펠트 소재가 따뜻하다.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두 가지. 14.95달러. [www.fordcollection.com](http://www.fordcollection.com)

### 3 FoMo's Color-Me Puzzle

스물네 조각의 퍼즐과 다섯 가지 컬러의 점보 크레용으로 구성된 '컬러미 퍼즐'은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추천한다. 퍼즐 조각은 재활용 재료로 만들었으며, 크레용은 비독성 제품이다. 10.99달러. [www.fordcollection.com](http://www.fordcollection.com)

### 4 Mustang Luggage

견고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캐리어 백. 360도로 회전하는 바퀴 덕분에 이동하기 편리하다. 레드 컬러와 머스탱 로고가 스타일리시하다. 폭 9인치, 높이 20인치. 77.99달러. [www.fordcollection.com](http://www.fordcollection.com)

### 5 Ladies Mustang Fleece Sweater Jacket

바람과 추위를 막아줄 플리스 소재의 집업 재킷. 스티치 디테일이 허리 라인을 잘록하게 잡아준다. 77.95달러. [www.fordcollection.com](http://www.fordcollection.com)

### 6 Ford Fiesta Remote Control Car

포드 피에스타의 터프한 보디 스타일링을 재현한 R/C가. 하이 토크의 Titan® 12T 550 모터를 탑재해 완벽한 속도와 파워를 즐길 수 있다. 189.99달러. <http://merchandise.ford.com>

### 7 Ford Mustang Pilsner Gift Set

포드 머스탱 로고가 그려진 '머스탱 필스너 기프트 세트'. 22온스 용량의 글라스와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 코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19.95달러. <http://merchandise.ford.com>

### 8 1948 F-1 Glass Shelf

포드의 클래식 카 1948년 F-1 시리즈를 모델로 한 선반이다. 아이들 방을 꾸미거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해줄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문 제작하는 제품이다. 114.95달러. [www.fordcollection.com](http://www.fordcollection.com)

성게알, 바닷가재, 한우, 채소, 신선한 식자재를 이용한 우리 고유의 음식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롯데호텔 서울 무궁화의 천상덕 셰프가 선보이는 정갈하고 품격 있는 미식의 세계에 빠져보자. 한식에 대한 울골은 셰프의 철학이 담긴 요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선물하는 힐링 그 자체다.

Editor 이희진 Photographer 이승호  
Cooperation 롯데호텔 서울(02-771-1000, www.lottehotel.com)

# Modern Korean Cuisine



식전 먹거리&제주 성게알찜  
울가을에 추수한 단호박, 감자, 연근 등을 사용해 식전 입맛을 돋워준다. 재료를 튀기거나 굽는 형식으로 제공해 바삭하면서 부드러움이 살아 있는 식자재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제주 성산포항에서 직구매한 성게를 그대로 담아내 진정한 바다의 맛과 영양을 모두 즐길 수 있다. 모시조개로 육수를 내고 달걀을 섞어 성게의 풍미가 일품이다.



한우 등심 구이&해물 궁중 신선로  
최고급 한우 등심을 사용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좋아하는 메뉴 '한우 등심 구이'. 간장 소스에 8시간 이상 재워 부드러우면서 감칠맛이 살아 있다.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제공한다. 전통 궁중 요리의 대명사인 신선로에 해물을 더해 색다른 맛의 조화를 선보이는 '해물 궁중 신선로'. 다시마와 멸치를 이용한 육수에 광어, 새우, 미나리 등을 곁들여 담백하면서 깊은 맛을 내는 무궁화의 대표 인기 메뉴다. 전통 궁중 요리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프레젠테이션도 인기 요인 중 하나.

**명장 무궁화 구절판**

무궁화의 구절판 차림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12월에는 구절판에 인삼, 덕덕, 애호박, 파프리카, 표고버섯, 쇠고기, 킹크랩의 다채로운 고명을 곁들여 선보인다. 흑인자 가루, 주황과 노랑 파프리카 주스, 매생이를 이용해 곱게 부친 사색 밀전병과 함께 즐기는 구절판의 맛과 섬세함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감탄했다는 후문. '광주요'에서 특별 제작한 팔레트를 모티브로 한 접시도 구절판의 맛을 한층 더한다.



**천상덕**

롯데호텔 서울 한식 레스토랑 무궁화의 천상덕 셰프. 27년간 오로지 한식 연구에만 힘쓰며 한길을 걷고 있다. 각국의 귀빈 만찬 및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세계 각국에 한식을 알리는 데 힘쓰는 그는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문화체육부 장관상, 서울국제요리 경연대회 대상 반가음식 부문, 롯데호텔 체인 요리대회 최우수상 한식 부문 수상 등, 대학에서 호텔조리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자신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그는 경기대학교 관광대학원 외식경영 부문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Q 이 요리들을 추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오늘 준비한 요리는 롯데호텔 무궁화의 대표 요리입니다. 명장 구절판은 우리가 수직업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 선보이고, 고추장 바닷가재 구이는 고추장 소스를 이용해 동서양을 접목했습니다. 해물 궁중 신선로는 우리나라의 궁중 요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고, 성게알찜은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식자재로 만들었습니다. 식전 먹거리는 가을에 추수한 것을 그대로 말려 식감도 부드럽고 달지 않게 무궁화 방식대로 준비했습니다. 한우 등심 구이는 한 입 크기로 만들어 연세가 많은 분이나 젊은 세대의 취향에 모두 어울리죠. 외국인 손님이 많다 보니 소스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간장이나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요리는 외국인의 입맛에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하다 사과나 배 등을 넣어 맛을 중화시켰습니다.

**Q 처음 요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A** 한식만 꾸준히 한 지는 올해로 27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숙집을 운영하셨기에 요리하는 걸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던 영향이 큼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6개월 정도 요리하는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 한식이 적성에 맞는 것을 느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요리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다면요?**

**A** 요리할 때 저는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미각적으로 염두에 두는 부분이죠. 정확한 미각을 위해 담배도 피우지 않아요. 요리할 때는 시간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조리 시간, 화력 조절, 소스의 농도 등이 음식 맛을 좌우합니다.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맛을 위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롯데호텔의 트렌드 중 하나가 매달 메뉴를 바꾸는 거예요. 냉동식품은 전혀 쓰지 않고, 식자재의 신선함을 위해 현지에서 바로 공수한 재료로 요리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Q 요리의 아이디어나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얻나요?**

**A** 예전에는 새로운 메뉴에 대한 영감을 잘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림이나 TV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뉴스에 내 고향 소식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데 신선한 식자재가 소개되면 '저걸 응용해보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죠. 시간이 날 때는 서점에 들러 요리 관련 서적도 참고하고요. 가끔은 미식 여행도

떠납니다. 얼마 전에는 캐나다로 미식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Q 셰프라는 직업에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A** 무궁화가 성업을 이룰 때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무궁화가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최상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층에게 요리를 선보이고 싶습니다.

**Q 앞으로 요리사로서 구체적인 계획과 이루고 싶은 소망은?**

**A** 다음 주면 경기대학교 박사 과정이 끝나요. 요리를 이론적으로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박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지요. 올해는 공부로 외도를 했으니 그 과정이 끝나면 내년에는 공부한 것을 토대로 충실하게 한 우물을 파고 싶습니다. 롯데호텔만의 자부심으로 새로운 한식 트렌드를 이끌어나가고 셰프로서 한 획을 긋고 싶은 것이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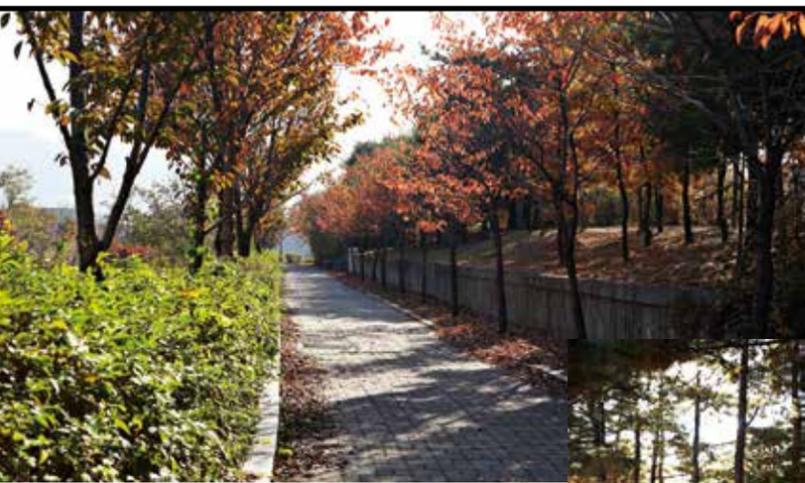
**고추장 바닷가재 구이**

흔히 양식 요리에서만 사용하는 재료로 인식되는 바닷가재를 무궁화 특유의 모던한 느낌을 더해 친숙한 한식으로 재탄생시켰다. 매운맛에 익숙한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전통 고추장에 배나 키위 같은 과일을 곁들여 매콤하면서 달콤한 맛을 살렸다.

예술영화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프렌치 요리를 맛보는 것. 그리고 쇼핑을 즐기며 서울 도심을 조망하는 것까지. 서래마을이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포드 방배 전시장이 있는 서래마을의 핫 플레이스를 둘러본다.

Editor 이지성(프리랜서) Photographer 이승호

## 프렌치의 멋이 살아 있는 新서래마을 탐험



### 1 프렌치 감성의 공원 몽마르뜨공원

언덕이 많은 지형의 서래마을 주변에는 세 개의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서리풀공원과 서리골공원 그리고 몽마르뜨공원이다. 이는 방배동, 반포동, 서초동 언덕 위에 자리하면서 지역을 잇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몽마르뜨공원'은 서래마을 토박이인 프랑스인의 감성을 반영한 곳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민 산책로와 가로등 그리고 벤치 하나까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넓은 잔디밭과 이를 둘러싼 평화로운 오솔길, 소나무 숲을 산책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이 전하는 힐링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펼쳐지는 조망도 일품이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 산책을 즐기기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기에도, 잔디에 누워 책을 읽기에도 좋은 서래마을의 시크릿 거든이다.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93 문의 02-2155-6860



### 2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프렌치 다이닝 제로 콤플렉스

프렌치 조리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식재료의 조합, 표현 방식을 더한 '네오 비스트로'는 현재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을 휩쓸고 있는 미식계의 트렌드다. 이를 선도하는 파리의 레스토랑 샤토브리옹, 르도팡 등에서 경력을 쌓은 이충후 셰프는 국내에 네오 비스트로를 선보인 장본인. 그의 레스토랑 제로 콤플렉스는 매일 저녁 한 가지 코스 메뉴로 운영하며, 이 메뉴는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팬에 구운 갑오징어와 토마토소스, 리코타 치즈 그리고 세발나물과 라즈베리 파우더를 곁들이는 전채요리는 이곳의 정체성을 드러낸 메뉴. 이 밖에도 버터보다는 올리브 오일을 주로 사용하고, 콜리플라워와 자몽, 쇠고기와 굴 등의 생경한 조합으로 완성한 이곳의 요리는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보여준다.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138 문의 02-532-0876

### 3 신진 작가의 흥미로운 작품 세계 갤러리 토스트

서래마을의 모미는 골목 안에서 발견하는 자그마한 숨과 갤러리가 아닐까. 노란색 우체통과 철문이 관람객을 맞는 '갤러리 토스트'는 골목 안에 자리한 보석 같은 갤러리다. 지역 주민에게는 신진 작가의 창의적인 작품이 많아 언제 방문해도 흥미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조문기, 찰스 장, 조장은 작가가 이곳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지난 11월에는 가수이자 아티스트 나열의 전시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갤러리는 전시 공간 위층에 레지던시를 운영해 신진 작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12월 15일까지는 회화 작가 백중훈의 개인전 <School of Fish>가 열린다. '동물과 아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섬세한 감정을 표현한 그의 신작을 만날 수 있다.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6-4 문의 02-532-6460



### 4 집을 위한 모든 것 W101 디자인

전 세계의 창의적인 리빙 브랜드, 디자이너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가구 편집숍이 문을 열었다. 지하와 지상 두 개 층에 자리한 'W101 디자인'은 디보디와 로리에 등의 세계적 브랜드의 가구부터 에다 소소 같은 아티스트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패브릭 제품, 자체 생산한 가구와 리빙 소품까지 총망라한 곳이다. 집을 위한 모든 것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디보디는 선박에 사용된 나무를 소재로 가구를 만드는 네덜란드 브랜드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 흥미롭다. 지하에 마련한 자체 생산 가구의 섹션에서는 모든 가구와 리빙 소품을 길이, 크기, 컬러까지 변경해 주문할 수 있다. 매장 안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며 여유롭게 매장을 둘러봐도 좋을 듯하다.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6-9 문의 02-6332-2101

### 5

### 예술영화를 만날 수 있는 소규모 영화관 아트나인

해외영화제 수상작이나 기다리던 예술영화가 국내에 배급되지 않아 아쉬워했던 경험은 영화 마니아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아트나인은 기존에 상영관이 적어서 또는 국내 배급 시스템 문제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전 세계의 예술영화를 상영한다. 무료 상영회를 비롯해 감독, 배우와의 만남 등 이곳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이벤트는 작은 영화제를 방불케 한다. 12월 아트나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씨네프랑스'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열리는 프랑스 영화 상영회다. 영화를 상영한 후에는 주한 프랑스 문화원의 다니엘 카펠리앙이 진행하는 프랑스 문화, 영화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프랑스 배우, 감독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진다.

위치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47-53 12층 문의 1544-0070





# Nobly Sports Polo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로 알려진 폴로. 상류사회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던 폴로가 조금씩 대중화되는 추세다. 국내에서 굵직한 국제 경기도 열리고 있다는 사실. 품격 있는 폴로의 세계에 입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Editor 강미라 Cooperation 한국폴로컨트리클럽



### 영국 군인들에 의해 시작된 폴로 스포츠

기원전 600년경 페르시아에서 '쇼간(Chaghan)'이라는 이름의 경기가 행해진 것이 '폴로'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다. 페르시아 국왕의 정예 부대와 직속 기마대의 훈련용 경기로 행해졌으며, 왕 앞에서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하는 스포츠이기도 했다.

티베트와 중국을 거쳐 인도로 전해졌는데, 이를 근대적 스포츠로 발전시킨 것은 영국이다. 19세기에 인도를 식민지화해 지배하던 영국 군인들이 이를 보고 자국에 전파한 것. 규칙을 정비한 후 기병대 훈련에 사용하거나 군대가 적을 물리친 후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즐겼다.

제5회·제7회·제8회·제11회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공황으로 위축되어 유럽과 미주 국가들의 스포츠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최근에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져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채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폴로 입문자를 위한 기본적인 경기 룰

폴로는 축구장의 여섯 배 크기 경기장에서 각 네 명으로 구성해 두 팀이 말을 타고 하는 경기다. '말렛(Mallet)'이라 불리는 스틱을 사용해 상대방 골문에 볼을 넣는 것이 룰. 한 게임당 7분 30초의 '추커(Chukker)'가 6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선수들은 말에 올라타고 말렛으로 공을 쳐서 상대팀 골문에 넣으면 1점이 주어진다. 수비를 하는 쪽에서 자기 팀 골문을 방어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상대 팀의 말이나 사람을 말렛으로 위협하거나 붙잡을 수는 없다. 단, 상대 팀 말과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바로 뒤에 있는 경우 공을 치려는 상대의 말렛을 자신의 말렛으로 막는 것은 허용된다.

말렛 이외의 것으로 공을 막는 것, 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것, 상대방 몸을 밀치는 것 등이 주요한 반칙 행위. 모든 추커를 끝냈을 때 득점이 많은 팀이 승리하며, 양 팀의 득점이 같을 경우 어느 쪽이든 1점을 얻을 때까지 연장전을 펼친다.

### 균형 감각과 투지력이 중요한 스포츠

폴로 스포츠를 접하려면 일단 말을 잘 다루어야 한다. 공을 쫓을 때 말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실제 경기에서는 공을 쫓을 때 재치와 투지력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파악하는 전술이 있어야 한다.

아시아에는 폴로 인구가 500명 정도 되는데, 외국 선수들과 게임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교의 기회로 이어진다는 것 역시 귀족 스포츠 폴로의 남다른 매력이다.

동북아시아 유일의 국제 폴로 경기장을 갖춘 제주도 한국폴로컨트리클럽에서는 국제 경기가 자주 열린다. 스릴과 박진감 넘치는 폴로 경기 관람을 눈앞에서 직접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지난 9월에는 '로얄 살루트 월드 폴로컵 대회(Royal Salute World Polo)'가 열려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 tip 한국폴로컨트리클럽

폴로를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곳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한국폴로컨트리클럽. 한국폴로컨트리클럽은 국제 경기 유치에 비롯해 폴로 멤버십을 운영한다. 회원들은 폴로 교육은 물론 회원 간 경기 참여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콘도미니엄, 클럽하우스, 잔디 폴로 경기장, 실내 폴로 경기장, 실외 승마장, 50두 마사, 수영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해 자연친화적 분위기가 돋보인다. 한국의 폴로 문화 확산과 발전에 힘쓰고 있는 대한폴로협회 이주배 회장이 2010년 문을 열었다.  
주소 제주도 구좌읍 행원리 3266 문의 064-784-9020, www.koreapoloclub.com

## 제주의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Pinx Golf Club**

신들의 섬이라 불릴 정도로 신비스러운 분위기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한국 최대의 섬 제주도. 그 제주도에서도 뒤로는 한라산, 앞으로는 최남단 마라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활한 대지에 아름다운 골프 코스가 펼쳐진다. 세계적 명문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핀크스 골프클럽으로 떠나보자.

Editor 이희진 Cooperation 핀크스 골프클럽(064-792-5200, www.thepinx.co.kr)

### 핀크스만의 남다른 가치와 정통성

'핀크스 골프클럽'은 한라산 지형을 그대로 살려 한 홀 한 홀 각기 다른 개성을 살려 코스를 다듬었으며, 한라산의 색과 선에 어울리도록 설계해 인상적이다. 핀크스 골프클럽은 꿈속에서나 존재하는 '이상적인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자금 투자를 아끼지 않고 마치 보석을 다루듯 토목, 잔디, 조경, 건축,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골프라는 스포츠가 자연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골프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코스는 어떤 것인지, 올바른 그린은 어떤 것인지, 세계적 메이저 토너먼트를 치를 수 있는 코스는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핀크스 골프클럽은 전 세계 170여 개의 골프 코스를 디자인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고 철학이 확고한 미국의 세계적 디자이너 테오도르 로빈슨(Theodore G. Robinson)이 설계를 완성했다. “처음 이곳을 보았을 때 특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 만든 것처럼 설계해야겠다고 결심했죠.” 핀크스를 설계한 테오도르 로빈슨의 말이다. 그의 풍부한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는 핀크스의 27홀은 골프 발상지 스코틀랜드의 전통을 따랐다. 월드 골프 코스의 정통성에 21세기형 골프의 신개념을 접목해 설계한 핀크스 골프클럽은 27홀 모든 코스에서 한라산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들어서는 순간 색다른 묘미가 느껴진다. 중산간 드넓은 초원 위에서 쪽빛 바다와 한라산, 오름의 조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연미를 최대한 살렸다. 홀 배치의 절묘함과 적절한 균형, 인상 깊은 조형미, 난이도 등과 더불어 14가지 골프채를 효율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플레이어의 재미를 더한다. 핀크스에는 사계절 푸른 필드가 펼쳐진다. 사계절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골프장 전역을 서양 잔디로 조성해 한겨울에도 푸른 잔디를 즐길 수 있도록

페어웨이뿐 아니라 러프까지 양잔디로 깔았다. 잔디 밑으로는 30cm 이상 모래를 깔아 배수에 만전을 기했으며, 세계적인 토너먼트를 치를 수 있도록 완성도를 더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골프 자매지 <골프 다이제스트>는 2년마다 국내외 골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을 통해 코스의 다양성, 난이도, 코스 상태, 경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명문 골프 코스를 선정하는데 핀크스 골프클럽이 1999년 4위, 2001년 2위, 2003년과 2005년에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05년과 2007년에 이어 미국 <골프 다이제스트> 선정, 미국을 제외한 세계 100대 골프장에서 핀크스 골프클럽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세계 100대 골프장에 진입하는 영광을 차지했으며, 2005년 11월에는 47년의 역사를 지닌 영국과 유럽 최고의 골프 전문 잡지 <골프 월드>가 선정한 세계 100대 골프 코스에 뽑히기도 했다.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 클럽하우스**  
프랑스문화훈장을 수상한 세계적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한 클럽하우스는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건축미의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권위 있는 건축 잡지 <신건축지>에 소개될 만큼 건축을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라산의 오름, 나무, 돌 등 자연 풍광과 예술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현대건축미의 결정체를 보여준다. 부대시설로는 레스토랑과 연회장, 프로 샵, 라커, 사우나 등이 있다. 특히 핀크스 골프클럽의 레스토랑은 창가에 앉으면 자연이 만들어내는 사계절의 아름다운 전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골프 코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뿐 아니라 맑은 날이면 멀리 산방산과 마라도, 바다의 푸른 수목빛이 조화를 이루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제주 산지의 신선한 식자재로 만든 정갈한 요리는 고객의 건강을 고려했으며, 고품격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어 라운드를 끝낸 오너들의 오감을 충족시킨다.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편안한 분위기의 연회장은 플레이 전후 회원들이 각종 연회와 모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안락한 휴게실과 회의 테이블이 갖춰져 식사와 차, 회의나 모임이 가능하며, 인원과 사용 용도에 따라 연회장 타임을 선택할 수 있다.



시인이자 소설가, 저널리스트, 음악가, 역사가였던 칼 샌드버그는 시간을 '당신이 가진 유일한 동전'이라 말했다. 그 동전을 어디에 쓸지는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법.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자만이 손에 든 동전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Editor 김미라 참고 서적 <시간을 정복한 남자 루비세프> 다닐 알렉산드로비치 그라닌 저, 이상원 역, 황소자리 출판

## 시간을 정복하는 자의 기술

### 시간 사용 패턴을 분석하라

러시아의 생물학자 알렉산드르 루비세프는 1890년에 태어나 1972년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학술서적 70권, 연구논문 1만2500여 장(단행본 100권 분량)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매일 8시간 이상 자고 운동과 산책을 즐겼으며, 한 해 평균 60여 차례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했다. 그가 방대한 저서를 남기면서 풍요로운 취미생활까지 즐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루 동안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꼼꼼히 기록한 것에 있다. 26세부터 56년간 매일 '곤충 연구(3시간 35분), 식물보호단체와 회의(2시간 25분), 잡지 읽기(10분)' 같은 식으로 분 단위로 일과를 적었으며, 1년간 어디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는지 통계를 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시간 관리의 첫걸음은 그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수면, 업무, 식사, 통화, 이동 등 하루에도 많은 일을 하는데, 이중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두자. 시간을 장악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

루비세프가 시간을 분 단위로 파악했듯, 일과를 계획할 때도 이를 활용한다.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2시부터 4시까지 미팅 등 시간 단위 리스트는 접어두자. 대신 12시 50분부터 1시 40분까지 점심, 1시 40분부터 2시 10분까지 티타임과 미팅 준비 식으로 구체적이고 세세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단 10분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일이 없어진다. 보통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심으로 시간을 구분해 사용한다. 반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과 '중요하고도 급한 일'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한다. 시간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성과의 차이로 이어진다. 퇴근 후 TV부터 켜는 것이 아니라 계획해둔 일 중 의미 있는 일부터 먼저 실행하는 습관에 익숙해지자.

### 가치 있는 나만의 체크리스트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거나, 연락이 뜸한 이들에게 안부를 묻거나, 가족들에게 마음을 담은 짧은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짧은 시간마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몰두하자.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나의 꿈과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간 일',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일', '정서적 안정감을 충족시킨 일' 등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에 대한 항목을 적는다. 매일 자기 전 이러한 항목에 해당하는 일을 실행했는지 체크한다. 유독 시간을 신성시했다는 루비세프의 일화가 있다.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당신에게, 성공은 어느덧 가깝게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 tip 시간을 버는 습관

- 1 해야 할 일은 기한 내 마무리하기
- 2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적임자에게 위임하기
- 3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실천하기
- 4 불필요한 요구는 단호히 되례롭게 거절하기
- 5 자기만의 안식처를 갖고 휴식 시간 철저히 지키기

# Ford Dealer News

포드의 딜러사별 다양한 뉴스를 모았다.

Editor 이희진

## 헤인모터스, 포드 미아 전시장·노원 전시장 오픈

10월 1일,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사 헤인모터스가 수입차 신흥 격전지인 서울 북부 지역에 포드 미아 전시장을 새롭게 오픈한데 이어 12월 말, 노원 전시장의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다.

헤인모터스는 올해 상반기에 오픈한 구리 및 의정부 전시장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미아 전시장과 노원 전시장까지 오픈함으로써 최근 수입차 시장 내 블루 오션으로 급부상 중인 서울·경기 동북부 지역에 판매 네트워크를 한층 확장,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미아 전시장은 포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고객에게 심층적으로 제공하고 고객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공간을 운영한다.



## 프리미어모터스, 포드 영등포 전시장 오픈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사 프리미어모터스가 서울 서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포드 영등포 전시장을 새롭게 오픈, 본격적인 판매 및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영등포 전시장은 포드 전 차종 전시 및 시승이 가능해 서울 서남권 고객들이 언제든지 포드와 링컨의 차량을 체험하고 시승할 수 있다.

영등포 전시장은 여의도와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영등포 지역 고객뿐 아니라 인근의 여의도, 대림, 목동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프리미어모터스는 이번에 오픈하는 영등포 전시장을 포함해 현재 송파, 방배, 서초, 평촌, 창원, 울산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제주 서비스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 Ford News

Editor 강미라



## 2013년 포드 환경 프로그램 후원 대상자 발표 및 에코 워크숍 개최

포드코리아는 지난 7일, 과거 및 올해 후원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에코 워크숍을 개최하고, 2013년 포드 환경 프로그램(Ford Motor Company Conservation&Environmental Grants)의 최종 후원 대상자를 발표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캠핑 열풍에 부응해 친환경 캠핑 문화 보급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한 (사)생태산촌 등 역대 최다 10개 지원자·팀에게 후원을 진행한다. 지난해 후원 대상자들이 1년간 진행한 각자의 환경보호 프로젝트와 성과를 공유하는 에코 워크숍에서는 환경 생태적 윤리를 기본으로 하는 친환경 디자인 기업 '쥬에코준컴퍼니' 이준서 대표의 환경보호에 대한 사례 강의와 한국그린캠퍼스대학생연합회 '대자연'의 에코백 및 에코 페브리즈 만들기 세션을 통해 참가자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3 워리어스 인 핑크 캠페인 개최

10월 세계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행한 포드 자동차의 글로벌 유방암 퇴치 활동 '워리어스 인 핑크(Warriors in Pink)' 캠페인을 성공리에 끝마쳤다. 포드 자동차는 '워리어스 인 핑크' 캠페인을 통해 오랜 시간 전 세계 유방암 퇴치를 위한 올바른 인식 증진 및 기금 조성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에 포드코리아는 고객이 포드 차량 시승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특별 기부 시승 프로그램'을 실시, 유방암 교육과 자가진단, 예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 '유방암 예방 클래스' 진행 및 포드코리아 공식 페이스북을 이용한 유방암 관련 상식 전달 등 자동차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포드 공식 딜러 3사(선인자동차, 프리미어모터스, 헤인자동차)와 함께 진행한 특별 기부 시승 프로그램에는 서울, 경기 및 주요 지역 17개 전시장에서 200여 명이 넘는 고객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각 딜러사는 캠페인 기간에 '2013 워리어스 인 핑크'의 공식 모델로 선정된 퓨전을 시승한 고객 1인당 1만6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유방암 인식 개선과 환우 치료를 위한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 기부 시승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여성 고객에게는 '워리어스 인 핑크' 컬렉션 스카프를 증정했다.



## SNS 팬들과 떠나는 소셜 캠핑 2탄 개최

포드코리아는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 포드코리아 페이스북(www.facebook.com/fordkorea) 응모를 통해 선발한 30명의 팬을 초대해 포드 자동차의 대표 모델을 시승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소통할 수 있도록 '소셜 캠핑'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소셜 캠핑 행사는 캠핑과 가장 잘 어울리는 포드 차량을 선택하고 선택된 차를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캠핑 계획을 제출해 행사에 응모한 팬 중 30명(3인 1팀)을 선발했다. 이들에게는 퓨전, 이스케이프, 토러스, 머스탱, 포커스 디젤, 익스플로러 등 각각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갖춘 6종의 모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승 기회가 주어졌다. 특히 시승 중에는 각 모델의 특성을 고려해 만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포드 차량의 숨은 진면목을 발견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 포드 머스탱·F시리즈, 2013 SEMA 쇼 '가장 인기 있는 차와 트럭' 선정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 '2013 SEMA(Specialty Equipment Market Association) 쇼'에서 머스탱과 F시리즈가 '가장 인기 있는 차와 트럭(Hottest Car and Truck)'으로 공식 선정되었다. '가장 인기 있는 차와 트럭'은 회원사가 출품·전시한 차량 중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차를 선정하는 상으로, 그해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을 소개하기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꼽힌다. 올해 포드 머스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기 있는 차(Hottest Car)'로 선정되었으며, 포드 F시리즈는 4년 연속 가장 '인기 있는 트럭(Hottest Truck)'으로 뽑혔다.



## GS칼텍스와 함께 특별 시승 이벤트 펼쳐

포드코리아는 GS칼텍스와 제휴해 시승 기회 및 경품 행운을 동시에 제공하는 '포드 특별 시승 이벤트'를 진행했다.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한 이번 이벤트에서는 GS&POINT(www.gsnpoint.com) 또는 KIXX(www.kixx.co.kr) 등 GS칼텍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시승 예약을 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에게 GS&POINT 2000P를 적립해준다. 또 온라인 예약 후 전국 26개 전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자사의 대표 중형 세단인 퓨전, 공인 연비 17km/L를 자랑하는 고연비 고성능 포커스 디젤, 베스트셀링 7인승 대형 SUV 익스플로러 등 세 모델을 직접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시장 방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포드 퓨전 한 대를 비롯해 GS칼텍스 상품권(100만 원) 5명, CGV 영화 관람권(1인 2매) 100명 등 총 106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 Ford Lineup

\*재원은 2013년 11월 기준



## 2014 FOCUS

	Trend	Sport/Titanium
엔진형식	2.0 TDCi	2.0 TDCi
트랜스미션	파워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더블클러치)	파워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더블클러치)
배기량(CC)	1,997	1,997
최대 출력(ps/rpm)	140/3,750	163/3,750
최대 토크(kg · m/rpm)	32.7/2,000~3,250	34.7/2,000~3,250
구동방식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공차 중량(kg)	1,319	1,319
복합 연비(km/L)	17	17
도심 연비(km/L)	15.2	15.2
고속도로 연비(km/L)	20.1	20.1
CO <sub>2</sub> (g/km)	113	113
등급	1	1

## 2014 TAURUS

	2.0 SEL / 2.0 Limited	3.5 SEL / 3.5 Limited	SHO
엔진 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V6 3.5L Ti-VCT 엔진	V6 3.5L 에코부스트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3,496	3,496
최대 출력(ps/rpm)	243/5,500	292/6,500	370/5,500
최대 토크(kg · m/rpm)	37.3/3,000	35.1/4,000	48.4/3,500
구동 방식	FWD	FWD	AWD
승차 정원(명)	5	5	5
공차 중량(kg)	1,890	1,900	2,020
복합 연비(km/L)	10.4	9.2	8.2
도심 연비(km/L)	8.8	7.9	6.9
고속도로 연비(km/L)	13.3	11.7	10.5
CO <sub>2</sub> (g/km)	171	193	220
등급	4	5	5



## 2014 MUSTANG

	V6 Premium	
엔진 형식	3.7L Ti-Vct V6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3,726	
최대 출력(ps/rpm)	309/6,500	
최대 토크(kg · m/rpm)	38.7/4,250	
구동 방식	RWD	
승차 정원(명)	4	
공차 중량(kg)	1,625 (Coupe)	1,680 (Convertible)
복합 연비(km/L)	9.3 (Coupe)	8.9 (Convertible)
도심 연비(km/L)	8.0 (Coupe)	7.5 (Convertible)
고속도로 연비(km/L)	11.6 (Coupe)	11.6 (Convertible)
CO <sub>2</sub> (g/km)	191 (Coupe)	200 (Convertible)
등급	5	



## 2014 ESCAPE

	2.0 SE/2.0 Titanium	1.6 SE
엔진 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직렬4기통 1.6L 에코부스트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1,596
최대 출력(ps/rpm)	243/5,500	180/5,700
최대 토크(kg · m/rpm)	37.3/3,000	25.4/2,5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AWD	FWD
승차 정원(명)	5	5
공차 중량(kg)	1,785	1,660
복합 연비(km/L)	9.2	10.6
도심 연비(km/L)	8.1	9.4
고속도로 연비(km/L)	11.2	12.7
CO <sub>2</sub> (g/km)	192	166
등급	5	4

## 2014 FUSION

	1.5 Ecoboost	2.0 Ecoboost	2.0 Hybrid
엔진 형식	직렬4기통 1.5L 에코부스트 엔진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직렬4기통 2.0L iVCT 2기통 사이클 엔진, 영구자석 교류(AC) 동기식 전기모터, 리튬이온 배터리, 제동에너지 재생 시스템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전자제어식 무단변속기(eCVT)
배기량(CC)	1,498	1,999	1,999
최대 출력(ps/rpm)	179/6,600	234/5,500	143/6,600
최대 토크(kg · m/rpm)	25.4/2,500	37.3/3,000	17.8/4,000
구동 방식	FWD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5
공차 중량(kg)	1,585	1,645	1,720
복합 연비(km/L)	시험 전	10.3	시험 전
도심 연비(km/L)	시험 전	8.9	시험 전
고속도로 연비(km/L)	시험 전	12.7	시험 전
CO <sub>2</sub> (g/km)	시험 전	172	시험 전
등급	시험 전	4	시험 전



## 2014 EXPLORER

	XLT	Limited
엔진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V6 3.5L Ti-VCT 엔진
트랜스미션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3,496
최대 출력(ps/rpm)	243/5,500	294/6,500
최대 토크(kg · m/rpm)	37.3/3,000	35.3/4,000
구동 방식	FWD	인텔리전트 AWD
승차 정원(명)	7	7
공차 중량(kg)	2,130	2,230
복합 연비(km/L)	8.9	7.7
도심 연비(km/L)	7.8	6.7
고속도로 연비(km/L)	10.7	9.4
CO <sub>2</sub> (g/km)	200	235
등급	5	5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Ford Network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서울 9개의 전시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7개의 포드 공식 전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공식 딜러는 전국 각지에 정비공장 및 킷서비스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2013년 12월 기준

## SHOWROOM

서울	삼성 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9	02-3442-2300	
	신사 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9-22	02-3444-1300	
	서초 전시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7-1	02-535-3800	
	미아 전시장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30 동일하이빌뉴시티 1층	02-6355-1000	
	노원 전시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09 인산빌딩 1층	02-6226-1000	
	동대문 전시장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8-11	02-2246-2100	
	강서 전시장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0-11	02-2063-6300	
	송파 전시장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82-5 포드빌딩	02-6928-3000	
	방배 전시장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1-1 장산빌딩 1층	02-6929-3000	
경기	영등포 전시장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9-28	02-6941-3000	
	일산 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116-16	031-913-2200	
	수원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81	031-221-7600	
	분당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02-7	031-714-2004	
	평촌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01-6	031-425-2212	
	구리 전시장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05-3 한화생명 빌딩 1층	031-8034-1000	
	의정부 전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기능동 88-2	031-822-1000	
	인천	인천 전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05	032-832-0001
		충청	대전 전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57-7
천안 전시장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50-24	041-562-0007
부산	부산 수영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164-1	051-758-0075	
	부산 해운대 전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83번지 센텀Q	051-741-5114	
울산	울산 전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52-7	052-261-3388	
경남	창원 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65-10	055-715-5000	
대구	대구 전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45-4	053-766-2000	
광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91-43	062-515-1010	
전북	전주 전시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3-6	063-273-0005	
강원	원주 전시장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679-1	033-762-0040	

## SERVICE

서울	강북 서비스센터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8-11	02-2216-1100		
	강서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0-11	02-3661-0011		
	삼성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9	02-3443-4500		
	신사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9-22	02-3444-1304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5-1	02-536-5150		
	송파 서비스센터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82-5 포드빌딩	02-2039-3001		
	분당 서비스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02-7	031-701-7004		
	일산 지정 서비스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864-2	031-913-2913		
	경기	수원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81	031-237-6340	
평촌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01-6	031-425-2212		
의정부 서비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기능동 88-2	031-8030-1000		
인천		인천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16-46	032-863-6080	
		충청	대전 서비스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8-61	042-585-5484
			천안 서비스센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50-24	041-563-0009
부산		부산 수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09-107	051-758-0046	
		부산 사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01-33	051-715-2000	
		창원 서비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65-10	055-715-3003	
울산	울산 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52-7	070-8897-4840		
대구	대구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32-1	053-355-7668		
광주	광주 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91-43	062-515-1020		
전북	전주 서비스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3-6	063-252-5400		
강원	원주 서비스센터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679-1	033-762-0041		
	강릉 지정 서비스센터	강원도 강릉시 청량동 574-1	033-641-9213		
	제주	제주 지정 서비스센터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2469	064-759-1472	



Polk. Polk사 선정 "포드 포커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세단 NEW FOCUS 디젤

TDCi



\* 위 내용은 Ford가 규정한 '탑승 차량'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시장 환경에 따른 자동차량이 바뀌거나, 플랫폼이 공유된 차량은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2년 기준 Polk 신규 국제 자동차 데이터에 등록된 다른 버전의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포커스 디젤이 드리는 특별한 가치

- 기술의 가치 - 60년 포드 유럽의 기술력이 만든 2.0L TDCi 디젤 엔진
- 드라이빙의 가치 - 20.1km의 동급최강연비와 뛰어난 토크가 주는 드라이빙의 즐거움



4Door/5Door의 다양한 디자인 | 토크 벡터링 컨트롤 (최첨단 차량 자세 및 동력 제어 시스템) | 6단 파워 시프트 (적은 연료 소비로 부드러운 변속 감각 제공) |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자동주차 기능)

\* 모델에 따라 선택 사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ORD'S BEST** 5년 10만km 보증서비스 [3년/6만km 소모성 부품 무상 제공 서비스(ESP)]

서초 02)535-3800	신사 02)3444-1300	삼성 02)3442-23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부산수영 051)758-0075	부산해운대 051)741-5114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동급 ▶ 포커스 2.0 TDCi : 배기량 1997cc 공차중량 1,535kg 자동6단 복합연비 17km/L 도심연비 15.2km/L, 고속도로연비: 20.1km/L 1등급 복합CO2배출량 113g/km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방,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 24시간 긴급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 080-300-3673, 02)517-4357 \* 전국 24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Go Further

ford-korea.com

50 YEARS OF  
CARRERA  
TAGHeuer



### Green Cross 후원에 대한 약속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태그호이어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Green Cross 국제 기금 마련 프로그램을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agheuer.com/kr](http://www.tagheuer.com/kr)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TAGHeuer

SWISS AVANT-GARDE SINCE 1860

제품 및 AS 문의 태그호이어 부틱 청담점 02-548-6020~1 롯데호텔 소공점 02-776-9018  
갤러리아 EAST 수원점 천안 센터시티점 대전 타임월드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 영등포점 노원점 대구점  
울산점 창원점 부산점 부산 센텀시티점 부산 광복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부산 센텀시티점 현대백화점 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신촌점 천호점 대구점 AK플러자 분당점 수원점 대백프라자 명보사  
[www.tagheuer.com/kr](http://www.tagheuer.com/kr)

Carrera  
Series

